지속가능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친환경종이와 **콩기름잉크**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2023. 유치원 현직연구원 개발자료

심화

지구를 지키는 아이들의 생태환경 이야기

전라남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책 한권이 QR속에

지구를 지키는 아이들의 생태환경 이야기



2023. 유치원 현직연구원 개발자료

첫 번째 이야기

아기 사마귀 구출로 시작된 우당탕탕 우리 반 생태 성장일기

10

두 번째 이야기

개미 선생님과 햇살 아이들의 삶과 만나는 생태환경 이야기

30

세 번째 이야기

농사 초보 교사의 상상으로부터 시작된 좌충우돌 꼬마 농부들의 텃밭 이야기

46

네 번째 이야기

씨앗 선생님과 새싹 아이들의 소소(작지만 소중)한 지구사랑 이야기

58

다섯 번째 이야기

무지개 선생님과 꽃잎반 아이들의 시나브로 커가는 생생 이야기

76

여섯 번째 이야기

초록빛 선생님과 꽃잎반 아이들의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를 구하는 이야기

94

일곱 번째 이야기

민들레 원감 선생님의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지구 사랑 이야기

120

여덟 번째 이야기

알면 유익한, 알면 실천하게 되는 지구人을 살리는 생태환경 이야기

140

생태환경교육, 왜 해야 할까?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Earth Overshoot Day)이라는 말이 있다. 인류가 지구 자원을 사용한 양과 배출한 폐기물 규모가 지구의 생산 능력과 저장능력을 초과하는 날이다.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은 4월 2일이었고,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이 우리처럼 먹고, 입고,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1년 동안 3.7개의 지구를 사용하게 되는 셈이다. 전 세계 평균이 1.75개로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가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환경 파괴에 참여하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느라 봄철의 이상고온과 이상저온, 여름의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 기존의 패턴에 없던 장마, 그리고 겨울의 이상 고온 등 기후변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제 더는 생태환경교육을 미룰 수 없다.

OECD 학습나침반 2030은 교육의 지향점을 개인과 사회의 웰빙(well-being)으로 삼고, 학생의 행위 주체성(student agency)을 가장 강조하는 개념으로 꼽는다. 학생의 행위 주체성은 개인적·사회적으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학생들이 행위 주체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학생 개인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며, 또래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상호 지원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후위기 환경재난 시대에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총체적으로 생태적 전환을 추구하는 교육'



2023년 전라남도교육청은 기후변화 환경교육을 '기후위기 환경재난 시대에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총체적으로 생태적 전환을 추구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면서, 유치원에서도 놀이 및 체험활동으로 생태감수성을 기르고 친환경 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유아는 경험을 통하여 추상적인 개념들을 알아간다. 자연을 자주 접하는 환경에서의 놀이는 유아가 다양한 생명체의 생태와 환경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아는 자신을 둘러싼 생태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스스로 참여하고, 포용하는 생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치원에서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탄소 중립에 대한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해나가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생태환경교육을 실행하며 얻은 결론은
결국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생태적으로 연구하고 살아가는 교사로서의 삶이 중요하고, 유아들과 함께하며 성찰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생태환경교육에 대한 인식의 폭과 실천의 정도가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른 선생님들이 '심화'의 의미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고민도 많았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내가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른 것 아니겠느냐

조동화 님의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시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면 좋으련만 생태환경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자신의 삶, 일에 관해 생각하는 것처럼 환경문제도 같은 견지에서 바라봐야 한다.

본 자료는 자신의 삶에 대한 문제의식을 함께 나누며 연구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의 고민과 성찰을 교사별로 담았다. 개념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유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에서 출발하여 직접 경험해보도록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교사로서 나는 어떤 고민과 생각을 했는지, 교실에서의 삶이 담겼는지를 성찰하고 기록하였다. 또한 교사로서의 나와 삶의 주인으로서 나의 간극을 좁히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현직연구원마다 생태환경교육에 대한 경험과 삶의 모습이 다르므로 자료를 볼 때 이점을 감안해 주기를 바라면서 교사 자신이 쓴 소개의 글을 먼저 읽어보기를 권한다. 그리고 에필로그를 통해 1~2년간 생태환경교육을 실천하면서 변화된 교사의 삶도 꼭 읽어주면 좋겠다.

현장 교사들이 생태환경교육을 시도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자료가 용기를 낼 수 있는 마중물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다. 2022년에 개발한 자료와 함께 곁에 두고 교차하여 보면 생태환교육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길잡이 역할을 녹록히 할 것이다.

소개한 기록과 실천이 완벽할 수는 없다. 다만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첫 번째 이야기

아기 사마귀 구출로 시작된

우당탕탕 우리 반 생태 성장일기

3세반 유아들과 현직연구원 2년차!

우리 반 생태 이야기를 담아보려 마음을 먹은 뒤 '무엇부터 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다.

그동안 아이들과 했던 것을 뒤로 한 채 새로운 것을 고민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생각해보았다. 해년마다 하는 텃밭, 공원과 숲에서의 놀이, 환경의 날 등 항상 해왔던 것들이 생태적인 것이 아니었던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기로 했다. "선생님 텃밭가요.", "공벌레 찾으러 가자요."

결국 새로운 것을 하기 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에 새로운 시각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화려한 꽃보다는 나뭇잎을 더 좋아해서 가을이 되면 책 사이사이에 나뭇잎을 하나 둘 끼워 놓는 **나뭇잎 선생님과 에그 박사, 양 박사라고 외치며 벌레와 함께 뛰노는 벌레 박사 아이들의 만남!**

각자의 입장과 생각에서 출발점이 다르지만 같은 목적지에서 만나길 기대하며 날마다 새로운 시작을 다짐해본다.



거미는 괜찮을까?

꽃을 선물할게/ 바깥의 벌레들을 만나요
아기 사마귀를 구하라! 거미는?

얘들아, 텃밭이 왜 좋아?

"선생님 꽃밭에 갈까요?"/ 텃밭이 왜 좋아?
우리 가족을 위한 텃밭 도시락을 만들어보자!
텃밭 정리는 누가 해야 할까?

풍성한 수확이 중요할까?

어~ 이건 뭐지?/ 풀을 뽑아서 잘 자랐나?
형님들이 뽑은 상추! 누가 가져갈까?

환경기념일에 뭐하지?

종이 없는 날/ 고구마다!
우리 반 나무, 노랑이/ 지구의 날
6월 환경교육주간~ 뭐하지?/ 우유갑 씻기 놀이?

아기 사마귀 구출로 시작된 우당탕탕 우리 반 생태 성장일기





거미는 괜찮을까?

꽃을 선물할게



4월 봄과 함께 놀이하며 「꽃을 선물할게」라는 그림책을 아이들과 읽게 되었다.

거미줄에 걸린 무당벌레가 하루에 3번을 그 앞을 지나가는 곰에게 살려달라고 계속 부탁하지만, 곰은 거미는 모기를 잡아주는 좋은 동물이라며 거절한다. 무당벌레는 곰이 좋아하는 꽃을 못살게 구는 진딧물을 잡아먹으니 자기도 좋은 동물이라고 말한다.

"저를 살려준다면 곧 수많은 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한다. 결국 곰은 무당벌레의 부탁을 들어주고, 꽃들이 만발한 들판에서 곰이 여자 친구와 함께 서있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끝이 난다.

읽어주면서도 참 신선한 접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들의 생각도 궁금해서 물어보았다.

좋은 동물은 또 뭐가 있을까?

아영: 토끼도 좋아요. 당근을 좋아하니까
영준: 모기는 나쁘지요? 우리를 물어요.
시윤: 나비랑 꿀벌도 꽃을 피어나게 해주는데 무당벌레도 그러네요.
다영: 무당벌레는 귀여워요.
건주: 지렁이도 좋아.

그러다 궁금해졌다. 무당벌레가 곰의 입장에서 도움을 주는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살려주지 않았을까? **좋은 동물이란 어떤 동물일까?** 교사에게도 어려운 질문이었다.

바깥의 벌레들을 만나요



텃밭과 바깥의 놀이하며 아이들은 개미, 공벌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공벌레를 잡으러 가자는 아이들의 말이 왠지 생태적인 표현 같지 않아 **"공벌레 만나러 갈까?"**로 바꾸어 주었다.

인준: 우리는 에그 박사님이에요.
인수: 나는 양박사야.

바깥에 나갈 때마다 돋보기나 채집통을 들고 외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궁금했다. 에그 박사님? 양박사가 뭐지? 찾아봤더니 자연관찰 만화에 나오는 이야기로 곤충과 관련이 있었다.

아이들은 아침 등원 때도 "안녕하세요. 선생님 에그 박사 왔어요.", "난 양박사"를 외치며 들어온다. 흙 놀이와 함께 벌레에 관심을 가진 아이들이 밖에만 나가면 벌레를 찾아다녔다.





"선생님 하트무늬 무당벌레가 있어요."

바깥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발견한 무당벌레였다. 정말 신기하게도 빨간 하트무늬였다.

나무 위로 올라가는 무당벌레가 잘 안 보인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 영상으로 찍은 후 교실에서도 자주 보았다. 그 뒤로 나무 앞에만 가면 무당벌레를 찾고, 흙속에서 다양한 벌레를 찾는 아이들 덕분에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평소 관심도 없던 나무 주변에 붙은 애벌레를 검색해 보고 무당벌레 애벌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전혀 닮지 않은 모습에 함께 놀랐고, 공벌레가 썩은 모과 열매 안에 살며 알을 낳은 모습도 보게 되었다.

거미줄에 걸린 아기 사마귀들을 구하라! 그럼 거미는?

교실에서 키우던 호랑나비 애벌레가 아침에 와보니 죽었다. 먼저 탈바꿈을 한 호랑나비를 텃밭에 날려준 적이 있어서인지 텃밭에 묻어주자는 이야기를 해서 나비 애벌레를 묻어주러 갔다. 토마토에 핀 꽃을 보고, 토마토 아래 묻어주자고 해서 묻어주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전시용 인형 조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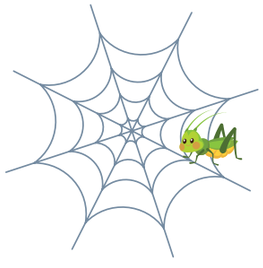




물 주위에 모여들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인형의 목 안쪽에 사마귀알집이 있고, 아기 사마귀가 엄청 붙어있었다.

문제는 거미줄이었다. 사마귀알집 아래쪽 거미줄에 수많은 아기 사마귀들이 걸려 버둥대고 있었다. 이미 힘이 없어져 축 처진 사마귀도 있었고, 아직 거미줄을 못보고 그 쪽으로 가는 사마귀도 있었다.



인준: 아기 사마귀들이 거미줄에 걸려있어.
인수: 아기 사마귀를 구해줘야 해.
교사: 그래~ 우리가 구해줄까?
그때였다.
연수: 그럼 거미가 배고프잖아요.

아~ 맞아! 「꽃을 선물 할게」 책이 생각났다. 책과 같은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아이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결정할지 궁금해졌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도 이제 태어났잖아", "거미는 모기 먹으면 돼."

구해주자는 의견 쪽으로 기울었는데 한 친구가 말릴 틈도 없이 풀 가지를 구해와 거미줄 몇 군데를 끊었다.

빠져나온 사마귀도 있고, 거미줄에 묶여 힘없이 죽은듯한 사마귀도 있었다.



연수: 거미는 어디 갔지?
다영: 거미는 괜찮을까?

일단 아기 사마귀를 구한 아이들이 어느새 거미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사마귀 대신 거미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한다며 화분에서 작은 꽃과 나뭇잎을 가져온 친구들도 있었다.

거미가 꽃을 먹는지 안 먹는지 의견이 분분했지만 다른 좋은 생각이 없었는지 한두 명씩 나뭇잎, 꽃 등을 거미줄에 얹어주며 거미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했다.

이제 죽은 호랑나비 애벌레는 잊어버렸나 했더니 애벌레를 묻은 쪽에 가서 다음에 꼭 나비가 되라며 꽃을 얹어주는 친구들도 있었다.

그 다음 날도 계속 호랑나비 애벌레를 찾는 아이들! 우연히 날아가는 나비를 보며 우리 애벌레라며 반가워한다. 우리 아이들은 애벌레가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나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건가?

주말과 대체공휴일을 지나고 오래간만에 텃밭에 간 아이들이 사마귀부터 찾아보았다.

거미줄만 가득한 곳에 아기 사마귀들은 없었다.

인수: 사마귀를 우리가 구해줬지!
인준: 아기 사마귀가 엄마, 아빠 사마귀가 됐나봐. 옥수수에 숨었나?
연수: 거미는 어디 갔지? 먹이를 하나도 잡지 못했네.
찬희: 우리가 먹이를 주면 어때?
영준: 모기를 잡자!



아이들이 그림책 속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해보는 모습이 흥미로웠다.

아기 사마귀를 구해주고, 거미의 입장도 잊지 않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모든 생명은 소중한 것이라고 말로만 외치는 것보다 스스로 실제 상황에서 느껴보고 함께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은 초록색 튼실한 사마귀를 발견한다면, 손가락으로 집게 모양을 하며 잡으려 이리 뛰고 저리 뛸 것이다. 하지만 자신들이 한번 구해주었다는 경험으로 좀 더 소중하게 대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아이들에게 좋은 동물, 나쁜 동물이라는 개념은 뭘까?

우리 아이들은 정답을 알아가기보다는 자연 속에서 스스로 살아가는 방식을 그때그때 찾아가는 것 같다. 매 순간 답이 달라지더라도 아이들이 경험해보고 자신들이 내린 답을 수정해 나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의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함께 실천해보고, 그 결과를 지나치지 않고 공유하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겠다.

사마귀 알집

사마귀는 거품 같은 분비물로 만든 알집에 알을 낳는데, 부화하는데 3개월 정도 걸리며, 늦가을에는 알집이 공기 중에서 굳어진 상태로 월동을 한다.

〔출처: 네이버 위키백과〕

거미의 먹이와 거미줄

거미는 꽃을 먹을까? 아이들도 의견이 갈렸다. 검색해 알아보니 거미마다 먹는 것이 달랐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곤충을 먹는 거미가 있는가 하면, 도마뱀, 쥐 등 커다란 동물을 먹기도 하고 꽃가루나 수액을 먹는 등 거미마다 모두 다르다고 한다.

거미줄도 모든 거미가 다 거미줄을 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먹이를 잡기 위해 거미줄을 치기도 하지만, 알을 낳아 걸어두려는 목적도 있고, 거미줄을 치지 않은 거미도 있다.

〔출처: 네이버 위키백과〕

얘들아, 텃밭이 왜 좋아?

"선생님 꽃밭에 갈까요?"

텃밭을 꽃밭이라고 부르는 아이들!

점심 식사가 끝나고 급식실을 나오면 항상 꽃밭, 아니 텃밭에 가자고 한다. 아무것도 없는 흙부터 시작해 씨앗을 뿌리고 새싹을 기다리며 텃밭에 관심을 가져주는 아이들이 너무 기특하고 예뻤다.

그러나…….

식물에게 물을 준다는 이유로 마음껏 물놀이를 하는 것 같은 아이들!

한 번만 주자고 해도 계속 물을 떠 나르고, 어떤 아이들은 옷까지 흠뻑 젖었다. 또 어떤 아이들은 내려오며 텃밭 신발이나 친구의 실내화를 3층에서 아래로 던지는 재미를 느끼기도 했다. 물을 몇 번만 줄지도 이야기하고, 신발을 왜 던지면 안 되는지도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3층에서 던져진 신발을 보며 나도 하고 싶다는 욕구가 더 생기는지 3일 연속 자꾸 신발을 던지는 친구들이 생겼다.

올해처럼 텃밭을 매일 가는 것은 처음이다. 물에 젖은 아이들의 옷을 갈아입히고, 부모님께 매번 사정이야기를 해야 하고, 그물망에 던져진 신발을 행정실에 죄송하다고 부탁해 꺼내고……. 점점 텃밭 가는 것이 교사에게 일이 되어 지쳐갔다.

너희들이 약속을 안 지켜서 텃밭에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어! 협박 아닌 협박도 해보았다.

그렇지만 비가와도, 날씨가 더워도 상관없이 약속을 잘 지키겠다며 텃밭에 가자고 조르는 아이들을 보며 마음이 약해져 결국 또 텃밭으로 향하게 되었다.





텃밭이 왜 좋아?

물놀이가 하고 싶을까? 3층까지 올라가는 것이 재미있을까?

벌레가 좋은 건가? 식물에 관심이 있기는 한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무렵, 텃밭 식물들이 쑥쑥 자라면서 물장난을 하거나 내려오면서 신발을 던지는 행동들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없어졌다.



완두콩, 시금치, 당근 등 눈에 보이게 텃밭의 작물이 자라고 다른 반 텃밭에서 자라는 우리가 심지 않은 옥수수, 비트 등에도 관심을 보이며 다른 반 텃밭까지 물을 준다. 수돗물만 틀던 아이들이 빗물 저금통에도 관심을 보여 역할을 나누어 물을 틀거나 잠그고, 받으며 도움을 주고받는 모습도 보였다.

어느 순간 텃밭에 평화가 찾아온 느낌이다.

급식실에서 주먹밥을 먹은 날 텃밭에서 쑥 자라 올라온 당근을 보며 어떻게 먹을지 이야기꽃이 피었다.




건주: 언제 먹을 수 있어요?
주현: 나 당근 좋아하는데…….
도영: 당근 케이크를 만들고 싶어요.
우준: 오늘 주먹밥에도 당근이 있었어요.

곧 있을 부모참여 수업시간에 당근을 넣은 채소 주먹밥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제안하며 아직 어린 시금치를 캐고, 빽빽한 당근을 솎아주며 뽑아보았다.

우리 가족을 위한 텃밭 도시락을 만들어 보자!

부모님과 당근, 시금치 주먹밥을 만들어 가족과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을 만들어보았다. 평소 먹지 않는 당근을 먹는 모습에 감동하는 부모님과 주먹밥을 만들어 맛도 보고, 도시락을 만들어 가져갔다. 다음 날 가족들과 맛있게 나눠 먹었다고 시키지 않아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다.

"하원 후 자기가 만든 도시락부터 찾았어요.", "텃밭의 당근에 대해 설명해주었어요."

"채소와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 "직접 기른 채소로 하니 좋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텃밭 당근과 시금치로 주먹밥을 만든 이후 급식실에서 당근이 들어간 음식이 나오면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이것 좀 보라며 선생님을 부르는 아이들과 당근이 들어간 다른 요리도 계획해보았다.

당근케이크도 만들어볼까?



텃밭 가족 도시락을 만든 후 아이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진 당근을 뽑고 추가로 좀더 구입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당근 핫케이크를 만들어 보았다.

텃밭과 먹거리를 연결한 아이들이 이제 텃밭에 가면 뭐가 열렸나?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다 익지 않은 초록색 토마토 열매를 따다가 눈이 마주치면 머쓱해 하고, 이제 막 꼬투리가 생긴 완두콩이 연휴 동안 말라버린 모습을 보며 완두콩이 불쌍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쑥 커버린 옥수수를 보며 선생님보다 더 컸다며 키를 대보라고 하며 자신들도 그 아래서 키를 대본다.



아이들에게 물어보았다. **얘들아 텃밭이 왜 좋아?**

"새싹을 키워주잖아요.", "벌레도 키워줘요."

"당근도 키워줘요.", "맛있는 것을 많이 줘요."

"옥수수가 있어서요."

매일 텃밭을 올라가면서 텃밭이 좋은 이유가 계속 바뀌어 간다.

그래도 바뀌지 않는 것은 텃밭에 도착한 아이들의 몰입된 표정과 바쁜 움직임!

텃밭에 파라솔 벤치가 있으나 거기에 앉아 있는 아이들은 한명도 없다. 매일 할 것을 정해주지 않아도 텃밭에 쭈그리고 앉아 각자 관심 있는 것들을 들여다보거나, 열매를 향해 손을 뻗고, 흙을 파보며 발견한 것들을 함께 보자며 교사의 팔을 잡아끄는 행동에서 아이들의 즐거움이 느껴진다. 마트에서나 보던 채소를 씨앗과 모종부터 직접 키워보며, 아이들이 삶속에서 식물과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텃밭은 교사가 알려주지 않아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탐색하고 시도하며 스스로 발견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일상 속 놀이터가 되어가고 있다.

텃밭 정리는 누가 해야 할까?



1학기 풍성했던 텃밭이 정리되고 2학기!

방학동안 텃밭을 말끔히 정리해주신 행정실에서 옥수수를 뽑기 너무 힘들었다며 다음에는 심지 말라고 했다. 선생님들이 심기만하고 텃밭정리는 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이야기한 것이다.

우리 반이 심은 옥수수는 아니지만 왠지 서운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와 식물을 심고, 물을 주는 것만 해도 큰일 했다 여겼는데…….

텃밭 정리까지?

갑자기 텃밭이 큰일처럼 느껴지고 엄청 부담스러워졌다. 그 정도 지원도 못해주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굵어진 옥수숫대를 잘라 쓰레기봉투에 힘들게 넣고, 말끔하게 정리된 텃밭에 올라가보니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아이들과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게 정리된 텃밭에 배추 모종을 심고, 시금치와 당근 씨앗도 뿌려보았다. 먼저 했던 반이 팽개쳐 놓은 모종삽, 모종, 씨앗 봉투가 흐트러져있다.

항상 바쁘게 텃밭에 들러 모종을 심고, 물주고 아이들을 챙겨 급하게 교실로 돌아오기 바빠 정리까지는 엄두를 못 냈던 것이 사실이다. 누구의 일인지를 따지기 전에 텃밭의 식물이 갑자기 사라진 것을 궁금해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앞으로는 좀 더 여유 있게 와서, 심고 물주는 것에 급급하지 않고 뒷마무리 과정까지 아이들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 정리하고 어려운 부분은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과 할 수 있는 만큼 해봐야겠다.

함께하는 텃밭이 선생님뿐 아니라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씩 아이들과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아이들이 매미와 방아깨비를 들여다보는 사이 다른 몇 몇 아이들과 도구들을 정리하고 내려왔다.

새로운 텃밭의 시작이다!

항상 형식적으로 하던 텃밭인데... 거의 매일 가게 된 텃밭! 올해는 뭐가 달랐지?

다 일궈진 텃밭에 씨앗과 모종을 대충 심고 사진을 찍고 내려와, 자라면 올라가 수확만 하고 끝났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흙 탐색으로 시작해 물놀이가 된 것 같은 물주기, 느닷없는 신발 던지기 등

좌충우돌한 과정이었지만 매일 올라가면서 텃밭의 달라진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이야깃거리가 많이 생겼다. “선생님 밥 먹고 또 텃밭에 가자요.”

“꽃밭”, “꽃밭”하더니, 어느새 텃밭으로 고쳐 이야기하는 아이들의 달라진 점도 생각해본다.

신발을 계속 던지는 아이들 때문에 신발 던지기 놀이를 실컷 해보면 어떠냐는 선생님들의 조언도 있었지만 어느 날 부터인지 신발도 던지지 않네!

빗물 저금통의 수도꼭지를 항상 교사가 잡아주었는데 한 명이 틀어주고 한 명이 받으며 잠그는 것도 제법 잘한다. 이제 자연스럽게 식물의 이름을 부르는 아이들을 보면서 텃밭의 재미가 느껴졌다.

텃밭을 돌보는 과정과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이들보다 교사의 손이 더 많이 가고 이것까지 교사가 다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달라졌다.

3층 텃밭 옆 강당에서 뛰고 싶은 유혹도 물리치고 텃밭을 먼저 꼭 가자고 하는 아이들!

얘들아, 그래 우리 꽃밭, 아니 텃밭에 가자~

씨앗은 뿌리고, 모종은 옮겨 심고

• 모종을 심는 작물

직접 모종을 키우려면 오래 걸리고, 많은 수의 작물을 심는게 아니니까 씨앗을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다. 모종에 적합한 것은 방울토마토, 고추, 가지 등이 있다.

• 씨앗을 심는 작물

잎채소는 씨앗을 뿌리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새싹을 솎아 먹을 수도 있고, 같은 면적이라도 더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다. 무랑 당근은 뿌리 끝에 성장점이 있어서 씨앗을 직접 뿌려야 한다. 이러 저리 옮겨 심으면 잘 자라지 못한다.

〔출처: 우리 집 텃밭에 놀러 와요, 이현진, 토토북, 2014〕



풍성한 수확이 중요할까?

어~ 이건 뭐지?



“선생님 이거 우리가 심은 거예요?”

채송화 씨앗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채송화가 자라고 있었다. 정말 신기했다. 채송화 씨를 뿌린 적이 없는데... 이 씨앗도 민들레처럼 날아다니나?

그때 한 친구가 이름 모를 풀을 가리키며 이것도 우리가 심은 것인지 물어보았다. 잘 모르는 풀인데 잡초이고 우리가 심은 식물이 먹을 물이나 영양분을 빼앗아갈 수도 있다고 말하자 뽑자고 이야기했지만 작은 텃밭에 잡초가 많은 편은 아니라 그대로 두기로 했다.



비가 많이 와서 텃밭에 며칠 가지 못했다.

원장 선생님께서 텃밭에 잡초가 많이 났다며 뽑아야겠다고 하셨다. 올라가서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뽑으려 했으나 꽃이 피어있는 잡초에 아이들이 예쁘다며 몰려들었다.

꽃이 예쁘니까 뽑지 말자고 해서 그대로 두기로 했다.

다음 날…….



어쩐 일인지 텃밭이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다. 알아보니 청소를 도와주시는 선생님이 뽑았다고 한다. **“꽃이 핀 것은 놔두라고 할 걸 그랬어요.”** 찍어놓은 사진을 보며 아이들이 아쉬워했다.

작은 풀 하나를 기억해주고 사라진 것을 서운해 하는 아이들의 감정이 그대로 전해져 함께 서운한 생각이 들었다. 자신들이 돌보는 공간에 생긴 작은 변화에 민감한 아이들의 모습이었다.

에고~ 아이들과 한 이야기를 미리 말씀 드릴걸…….

풀을 뽑아서 잘 자랐나?





여름이 되어 잡초가 더 무성해졌다. 길쭉길쭉 자란 풀을 보고 아이들과 몇 개 뽑아 주었다.

당근과 상추 사이에 길게 자란 풀을 뽑으며, 꽃이 피어 있는 풀을 보고는 이번에도 뽑지 말자고 말하는 아이들!

이번에는 뽑지 않고 청소하시는 선생님께도 말씀드렸다.

아이들과 풀을 뽑은 후 비도 오고 텃밭 가운데 상추가 눈에 띄게 쑥쑥 자랐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상추를 맛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5세반 선생님이 오셨다. 상추 양이 적으니 5세가 전체 텃밭의 상추를 수확해서 동생들과 나누면 어떠냐는 제안을 했다.

우리가 직접 수확하지 않아도 좋은 생각 같아 아이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5세가 상추를 수확하기로 했다.



형님들이 뽑은 상추! 누가 가져갈까?



5세반 친구들이 적은 양의 상추를 모아 봉투에 담아 가져왔다. 우리 반에게 주어진 상추는 2봉지!

잘 먹은 후 어떻게 먹었는지 소개해줄 수 있는 친구가 가져가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주고, 여러 가지 상추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소개해 주었다.



"누가 상추를 가져가면 좋을까?"

상추를 싫어한다는 친구들도 서로 가져가겠다며 손을 든다. 아이들과 이야기해보다가 가족 수가 많은 집이 가져가면 어떨까? 이야기했더니 쌍둥이집을 모두 가리킨다. 한 친구는 자기도 누나가 있다고 하고, 다른 친구는 동생이 있다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나섰다.

"누나가 더 상추를 잘 먹지 않을까요?"

"동생은 잘 못 먹어"…….

여러 가지 이야기 끝에 상추는 쌍둥이와 누나가 있는 집으로 가져가기로 했다. 그리고 맛있게 먹은 모습을 꼭 친구들에게 보여주기로 약속했다. 낮잠 시간이 되어 누우면서 동생 있는 친구에게 못 가져가서 서운한지 물었더니 다음에 가져가도 된다며 씩씩하게 말한다.

다음에 수확하면 꼭 줘야지…….

모두다 조금씩 가져가는 것 보다는 수확 되는대로 몇 명만 가져가니 아이들의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았다.



상추를 가져간 친구들 부모님께 부탁해 먹는 모습을 공유하였다. 누나가 있다고 어필했던 친구는 평소 먹지 않았었는데 맛있게 먹는 모습에 깜짝 놀랐다. 상추 봉투를 받고 싶은 욕심에 가져간 것은 아닐까 했는데 맛있게 먹었다고 하니 이것을 계기로 먹게 되지 않을까?



텃밭의 잡초는 항상 관리해주시는 분들이 뽑아주어 평소 잡초에 대해 관심이 없다가,

문득 심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날아오는 걸까? 이름은 뭐지? 아이들의 마음으로 궁금해졌다.

작은 꽃을 보고 좋아하며 뽑지 말자고 하는 아이들을 보며 평소 그냥 잡초라 생각했던 민감하지 못한 나를 반성해보기도 한다.

잡초는 꽃이 피었든 안 피었든 당연히 뽑아야한다고 생각했는데…….

작은 일도 아이들이 결정하고 직접 해보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다.

아이들에게 풍성한 수확이 중요할까?

잡초에 핀 꽃, 튼실하고 예쁘게 자라지는 않았지만 가늘고 삐뚤빼뚤 자란 당근, 폭이 크지 않은 적은 양의 상추라도 아이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스스로 물도 주고 풀도 뽑아주고, 형님들이 뽑아 요리법까지 알려준 것 등 각각의 스토리가 담겨있기 때문 아닐까?

텃밭에서 많이 **수확해서 풍성하게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잊지 않는 것이다.**

토종 씨앗 이야기

우리가 종묘상에서 구입한 씨앗은 대부분 거대 기업에서 개발한 일회용 씨앗이다. 일회용 씨앗은 잘 자라고 수확량이 많지만, 대물림할 수는 없다. 오랜 옛날 농부들은 다음해 농사지을 씨앗을 소중히 받아 보관해 왔다. 이 토종씨앗은 우리 땅과 기후에 적응해 와서 우리 몸에 맞는 먹을거리를 준다.

〔출처: 우리집 텃밭에 놀러와요, 이현진, 토토북, 2014〕

환경기념일에 뭐하지?

종이 없는 날

4월 4일 종이 없는 날! 하루 전 급하게 다른 유치원에서 받은 홍보 카드 뉴스를 수정해서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다른 반과 공유하려 했다. 그러나 사전에 아이들과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았고, 학부모들에게 행사 위주로 안내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으로 공유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반에서만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다.



오늘은 종이를 쓰지 않는 날이래...

종이는 무엇으로 만들까? 나무가 많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관련 영상도 보고 우리 교실에서 우리가 쓰는 종이도 찾아보았다.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손을 씻은 후 종이타월을 1장씩만 쓰기로 약속해보았다. 손을 씻은 후 물기를 잘 털고 1장만 쓰기로 약속!





영상 속 손 씻기를 그대로 따라하며 아이들이 정한 목요일을 우리 반 종이 안 쓰는 날로 정해보기도 했지만…….

며칠 하다가 시들해지고, 말 그대로 종이 안 쓰는 날 하루로 모든 게 끝나버린 느낌이었다.

고구마다!



유치원 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아이들이 많은 것을 발견하며 즐거워할 때, 고구마를 찾았다며 아이들이 갈색 열매를 들고 왔다.

모과나무 아래 작년에 열렸다 떨어진 모과 열매였다.
떨어져 썩은 열매가 아이들 눈에 고구마로 보였던 모양이다.
아이들 말대로 진짜 고구마처럼 보여 웃음이 나왔다.

아이들과 모과나무를 찾아 함께 올려다보았다.

아직도 나무에 매달린 채 갈색이 되어버린 모과 열매도 꽤 되었다. 3년째 이 유치원에 있으면서 2년째에 모과나무에 꽃이 핀 것을 처음 보았고, 이제 3년째 썩은 모과나무 열매가 계절이 지나도 달려 있는 것을 처음 본다.

이 공원을 자주 나왔는데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다니...

핸드폰으로 검색해 싱싱한 모과열매 사진을 찾아보았다. 노란색 열매를 보고 우리와 같은 노랑이라며 좋아한다. **"우리도 노랑반 이잖아요."**

종이 없는 날! 나무에 대해 이야기만 하고 끝났는데... 연결할 기회로 여겨져 아이들에게 제안해보았다.

그럼, 이 나무를 우리 반 나무 하면 어때?

우리 반 나무, 노랑이



우연히 발견한 썩은 모과 열매를 계기로 여러 모과나무 중 맘에 드는 나무를 정하고 우리 반 나무 이름도 정해보았다. **노랑이~**

팻말을 고민하다가 클레이 뚜껑에 그림을 그리고 꾸민 후 나무에 걸어주었다.

이름표를 달아준 후 아이들이 공원에 나가면 항상 나무를 들여다본다.

나무 몸통의 무늬를 루페로 들여다보고, 개미가 기어가면 나무를 괴롭힐까 걱정하며, 노란색 꽃이 필 것이라는 아이들의 예상과는 달리 분홍색 화려한 꽃이 피자, 환호하고, 이제 여름이 되어 초록색 열매가 노랗게 익기를 기다리고 있다.



"선생님, 이 나무도 종이가 돼요?"

한 친구가 나무 몸통의 초록과 주황의 예쁜 무늬를 보고

"종이도 정말 예쁘겠다." 말한다.

찾아보니 종이가 되는 나무는 정말 다양하지만, 모과나무는 건물의 기둥으로 쓰였다고 한다. 나무를 종이하고만 연결하는 아이들에게 좋은 공기도 만들고, 물을 빨아들여 홍수를 예방하고, 열매도 주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다.

"얘들아, 근데 이 열매 먹을 수도 있다는 거 알고 있어?"

아이들에게 모과차를 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야기해 보았다.

가을까지 아직 멀었지만 내가 모과 열매를 썰어서 차를 담글 수 있을까? 모과나무 열매가 바닥에 뒹구는 것을 보면서도 딱딱한 열매를 힘들게 썰어서 차를 만드는 일이 머리 아파 향기만 맡고 버렸었는데.....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기도 했지만 아이들에게 열매가 노란색이 되면 모과차를 만들자고 약속을 해보았다.

방학 중 유치원에 나갔다가 문득 모과나무가 궁금해졌다. 아이들과 함께 애써 만든 이름표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가지가 축축 늘어진 채 초록열매가 더 자랐다.

이름표가 없어도 노랑이라는 이름을 아이들은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 조금만 기다리자! 모과나무와 만난 지 3년 만에 모과차에 꼭 도전해봐야지~

지구의 날



4월 22일 지구의 날! 하루 전 급하게 계획했던 종이 없는 날을 염두에 두고 일주일 전 가정에도 안내를 하고 전체적인 소등행사를 계획해보았다.

그리고 소통 앱을 통해 참여사진이나 내용을 공유하기로 했다.

10분간 불을 끄고 해본 것을 공유하기로 안내했는데 막상 뭐하지? 했을 때 생각나는 것이 없었다.

교사부터 솔선수범해야 할 거 같아 작은 회사의 지구의 날 이벤트에 참여해보았다. 친환경 가구회사인데 자원순환 영상을 시청하고 댓글을 올리면 추첨해서 새싹키트를 주는 행사였다.

각 가정에서도 그림을 그려 올리거나, 가족끼리 불을 끄고 촛불을 켜기, 불 끄고 그림자 놀이하기, 여행가서도 약속을 지켰다는 등 가족이 함께 관심 가져주는 경우가 많았다.






참여가 많지는 않아, 이후 참여한 친구들의 경험을 사진으로 공유하고 이야기 나누어 보았다.

참여한 친구들은 자랑스러워하며 불을 끄고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는 했지만 왜 불을 껐는지 잘 이야기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급식실이나 강당을 갈 때면 서로 불을 끄려 발돋움을 해 키가 닿지 않는 전기스위치에 손을 뻗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인다.

결국 교사가 끄지만 내가 깜박했던 것을 생각한 아이들이 기특하다.

전기 스위치가 3세 유아에 맞게 좀 더 낮았으면…….

6월 환경교육주간~ 뭐하지?

6월 환경교육주간이 되어 어떻게 할지 선생님들과 함께 미리 고민하게 되었다.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항상 교육과정 교사들이 고민하고 아이들하고만 실천하던 것에서 방과후과정 및 교직원과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여러 의견 끝에 교직원 각자의 약속, 학급의 약속을 패들렛에 올리고 실천한 것도 공유하기로 정해보았다.

사실 아이들과 종이 없는 날을 정하기는 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고, 나만의 약속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다. 며칠 고민했지만 특별한 약속보다는 평소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 개인의 약속은 물티슈 쓰지 않고, 걸레 쓰기로 정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도 새롭게 정하기보다는 지켜지지 않았던 종이와 관련된 약속으로 목요일은 손을 씻은 후 종이 타월을 쓰지 않고 우리가 염색한 손수건을 쓰기로 했다. 5세 유아들은 개별로 약속을 올려보기도 했다.



패들렛에 함께 약속을 공유하면서 우리 반 안에서만 이야기하고 끝날 때와 다르게 다른 반 친구들의 약속과 다양한 생각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반의 약속을 소개하면서 함께 다짐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환경교육주간이 끝난 후에도 목요일에 화장실 입구에 손수건을 비치해 놓으면 알아서 찾아 쓰고, 목요일이 아니어도 손수건이 눈에 띄면 사용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함께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선생님들의 약속은 행정실과 급식실의 참여가 적어 아쉬웠지만 관심을 가져주고 함께 이야기 나눈 것을 계기로 한 가지라도 달라졌으리라 생각해본다.




우유갑 씻기 놀이??

'9월 7일 푸른 하늘의 날'을 안내하며 푸른 하늘을 만들기 위해 실천한 것들을 패들렛에 공유하고 학급에서 나온 우유갑을 모으기로 했다. 한 번씩 우유갑을 씻어 말린 것으로 만들기는

해보았지만 재활용하는 곳에 전달하기 위해 매일 모은 것은 처음이다. 20개가 모이면 묶어서 내놓았는데 처음에 교사가 씻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씻겠다고 나서서 각자 씻기로 했다.

아이들이 씻어보는 것은 좋았으나 씻는 시간이 길어지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우유갑 재활용을 위해 이렇게 많은 물을 쓰다니!

손비누를 잔뜩 짜서 씻는 아이들도 있어서 우유갑을 씻는 이유와 씻을 때 사용하는 물의 양에 대해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었다.



교사: 얘들아, 우유갑을 씻을 때 물을 많이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도영: 물이 사라져요.

인준: 물 못 먹어요.

하은: 조금만 써요. 영준이가 물 많이 썼어요.

영준: 아니야, 나는 깨끗하게 하려고 했어.

교사: 물을 조금만 써도 깨끗하게 할 수 있대. 우리가 양치물을 컵에 받아쓰는 것처럼 물을떠서 그 물로만 헹구면 어때?

결국 교사가 제안해서 클레이 통에 물을 받아서 함께 헹군 후 물기를 털고 걸레로 우유갑을 닦기로 했다. 좁은 통 안에서 헹구다 물을 흘리면 어쩌나 걱정도 됐지만 조심조심 하는 아이들을 보며 괜한 걱정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금 흘리기는 했지만 교사가 시범 보이는 대로 천천히 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기특했다.

헹군 물은 모아서 텃밭에 주기로 했다.

빨리 화장지로 바꾸고 싶다는 아이들이 우유갑이 20개씩 모일 때마다 함께 모으는 통에 넣는 재미를 느끼고 있다.

9월 30일까지 날짜를 정해 모으기로 했으나 기한 이후에도 계속될 것 같다.

환경기념일마다 어떻게 다 챙겨? 하는 고민도 있었다.

환경기념일이나 환경교육주간 등의 행사일은 그 날 하루 실천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의 실천을 계기로 생활 속에서 생각하고 계속 이어나가는데 의미가 있음을 느꼈다.

모든 환경 관련 날을 다 이야기 나눌 필요는 없다. 흐지부지되었긴 했지만 종이 없는 날을 계기로 환경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환경 관련 날을 아이들과 이야기하며 다시 안 되었던 부분을 이어가게 되었던 것 같다.

손수건을 쓰면서 하루의 실천이 얼마나 환경에 도움이 될까? 생각했지만 손수건 세척문제도 있고 개인 손수건을 매일 들고 다니는 것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하루라도 익숙해지려 노력하고 있다.

손수건 뿐 아니라 교실 내 물티슈 사용도 줄여 우유나 물을 흘렸을 때 종이타월이나 물티슈를 찾지 않고 걸레를 자연스럽게 찾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 몸에 배지 않은 아이들의 첫 단추를 잘 끼워주면 자연스럽게 스스로 잘할 거 라는 생각이 들어 든든했다.

아직도 교직원 모두의 노력이 아쉽지만, 교무실에서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고, 일회용컵도 잘 씻어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 예전과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여러 환경기념일 중 하나라도 관심 가진 것이 계기가 되어 우리의 생각과 생활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바뀌어 가길 기대해 본다.

기후 및 기후변화 관련 행사



[출처: 유아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교사용 자료집), 교육부, 2021]

두 번째 이야기

개미 선생님과
햇살 아이들의

삶과 만나는 생태환경 이야기

나는 교사 생활 10년 차, 현직 연구원 1년 차 개미선생님이다. '개미'라는 별명은 아이가 개미와 선생님이 조그만 게 닮았다고 해서 지어주었다. 나는 우리의 삶이 환경을 생각하면서도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되도록, 햇살아이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연구하고 있다. 아이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느끼는 것이 삶의 일부분이 되길 바라며 실천해보려한다.

3세 햇살아이들은 생태환경과 마주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이 많아지고 목소리도 커진다. 만지고 싶은 것을 만지고, 모든 궁금증에 스스로 상상한다. 하고 싶은 것에는 다양하게 시도하지만, 하기 싫은 것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거부하는 아이들이다.

좌충우돌 3세 아이들과 개미선생님의 상호작용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물들여진,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읽어주길 바란다.

휴지심이 필요했던 것뿐인걸요?
구겨진 종이는 싫어요. 새 종이만 쓸래요.
물티슈 어디 있어요? 화장실에서 씻긴 귀찮아요.
화장실에서 하는 물장난은 재미있는 걸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을래요.
우유, 튼튼해지려면 먹어야 되지만 그래도 싫어요.

오늘도 미세먼지 때문에 못나가요?
거미가 우리 반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함께 배워가는 여정: 화분 씨앗심기





개미 선생님과 햇살 아이들의 삶과 만나는 생태환경 이야기



휴지심이 필요했던 것뿐인걸요?



휴지심이 필요해서 휴지를 풀어 헤친 모습

태민이가 휴지심과 종이상자를 이용하여 집을 만들었다. 그 작품을 보던 아이들은 재활용품으로 만들기 시작했고, 모아두었던 재활용품들을 다 써버렸다. 놀이를 하다가 뒤늦게 만들고 싶어진 진희는 혹시 다른 바구니에 쓸 만한 재료가 섞여 있지 않은지 샅샅이 살펴보더니 한 개를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친구들이 만든 작품에 있는 휴지심을 만지작거리다가 갑자기 화장실에 간다고 하더니 5분이 지났는데도 교실에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진희가 걱정이 되어 화장실에 들어가 보았다. 휴지들이 바닥에 마구 뒤엉켜 다 풀어 놓았고, 옆을 보니 화장실 칸 안에도 꽤 많이 풀려 있었다. 아이의 손에는 휴지심 한 개가 있었다.

"필요해서요. 휴지심 필요해요."

"얘가 휴지를 빼라고 했어요. 얘, 때문에 그랬어요."

화장실에 용변을 보러 온 준희는 화들짝 놀랬고, 교실에 있는 아이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야! 화장실에 휴지 폭탄이야! 휴지 폭탄! 빨리 와!"

화장실에 모여든 아이들의 반응이 다양했다.

"휴지 폭탄이다! 펑!!!!!!"

하며 상황 자체를 즐기는 아이도 있었다.

"야! 휴지 아깝게 왜 이래놨냐?! 지구 아프잖아! 다시 다 해놔! 다!!"

"우리 써야 하는데 휴지 못 쓰겠다……"

하며 휴지를 낭비 하여 아깝고, 속상한 마음을 말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내가 진희와 수영이에게 풀어 놓은 휴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니, 휴지를 원래대로 돌려놓겠다고 했다. 그렇게 진희와 수영이는 자신들이 풀어헤친 휴지를 원래대로 해 놓는 책임을 져야만 했다. 화장실 바닥에 닿은 부분을 빼고 돌돌 말았다.



풀어헤친 휴지를 원래대로 해 놓은 모습

문제는 휴지 한 통을 넘게 푼 것을 말다 보니 부피가 커져서 휴지심 한 개로는 역부족이었다. 진희도 느꼈는지 바구니에서 찾았던 휴지심을 나에게 쓱 내밀었고, 진희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조금 맺혀있었다.

바닥에 닿은 휴지는 용변 볼 때 쓸 수가 없게 되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유 흘릴 때 닦으면 어때요?"

"우유 많이 흘리면 걸레로 닦아야 돼."

"우유를 조금 흘렸을 때 닦으면 되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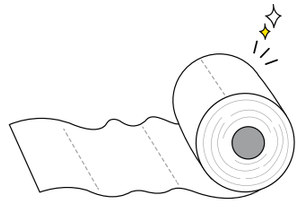
아이들이 말하는 '조금'이 얼굴만 한 양인지, 손가락만 한 양인지 물어보았다. 아이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조금'을 말하기 시작했다.

"손가락만 했을 때도 젖었었어요!"

"손톱! 손톱만큼 방울방울로 흘렸을 때는 괜찮잖아."

"그럼~ 손톱 방울방울일 때 닦자."

아이들은 손톱 정도 흘렸을 때 닦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 후 아이들은 우유를 먹고 흘렸을 때 휴지와 걸레 중 어느 것으로 닦을지 한참을 보기도 했다. 한두 방울 흘린 정도는 휴지로 닦고, 눈으로 봤을 때 확연하게 많이 흘린 것은 걸레로 닦았다. 그중에는 많이 흘렸는데 돌돌 말아진 휴지를 닦으려고 가져오다가 다른 아이들에게 "야! 걸레 가지고 와!" 한 소리를 듣기도 했다.

휴지는 필요한 만큼만 사용해야 하는데, 휴지를 얼마만큼 써야 되는지 궁금해 하는 아이가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 엄마는 5칸 쓰면 된대요."

5칸으로 써보자는 의견에 다른 아이들도 동의했다. 휴지를 쓰던 지수가 두 손으로 두세 바퀴 돌렸다가 잠시 멈추고, 다시 휴지를 원래대로 되돌렸다. 5칸은 아니지만 어림잡아 본인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뜯었다.

필요하니까 휴지를 모두 풀어 헤친 휴지 사건은 아이들에게도 의미 있었다. 아이 스스로 많이 썼다고 생각하여 휴지를 원래대로 되돌리거나 우유를 한두 방울 흘릴 때는 되돌린 휴지를 쓰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아이들은 합의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지구를 지키는 일에 한 발 다가서는 가치 있는 행동이 아닐까 생각한다.**

구겨진 종이는 싫어요. 새 종이만 쓸래요.

자유놀이가 끝나면 교사의 잔소리는 끊이질 않는다. 바로 종이 때문이다.

“선생님! 쓰레기통이 넘쳐나요.”
나는 쓰레기통에 있는 구겨진 종이를 펴서 쓸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구겨져서 쓸 수가 없어요. 안 쓰고 싶어요!”
나는 구겨졌지만 빈 곳이 남아있는 종이를 쓸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대답은 같았다.
“못 써요. 안 쓰고 싶어요!”

아이들은 구겨지거나 선이 하나 그어져 있기만 해도 ‘쓸 수 없는 종이’로 생각하여 쓰레기통에 버렸다.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여 구겨진 종이도 예술작품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를 나누었다. 교사의 인정을 받기 위해 구겨진 종이에 톡톡 물감을 이용한 작품을 만들기도 했다. 구겨진 종이로 예술작품을 만든 아이에게 의도적으로 칭찬을 해 주고, 그 칭찬 속에 다른 아이들도 했으면 하는 기대도 했다. 7월이 다 지나가는 요즘도 딱지를 접는데 원하는 데로 접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구겨버리고 있다.

“새 종이 주세요. 새 종이 쓰고 싶어요.”

자유놀이 시간이 끝난 후 ‘더 쓸 수 있는 바구니’에 넘쳐나는 조각 종이를 새 종이 대신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교사 몰래 새 종이를 꺼내 쓰는 아이들도 있었고, ‘더 쓸 수 있는 바구니’에 있는 종이를 마구 써서 쓰레기통에 없애는 행동도 보였다. 이처럼 교사의 말에 수긍하는 척하거나, 새 종이를 쓰고 싶은 아이는 강하게 저항하기도 하였다. 아이들의 욕구 제한이 또 다른 남용 행동으로 나타났다. 선한 행동이 또 다른 선한 행동을 낳길 바라였는데,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사만 주도한 ‘종이 아껴 쓰기’에 교사만 혼자 애를 쓰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나는 새로운 종이를 써야 할 때 쓸 수 있는 제한을 두어야 할지, 새로운 종이를 다 쓰면 구겨진 종이를 쓸 수 있도록 해야 할지 아이들에게도 의견을 물어보았다.

“새로운 종이도 쓰고 싶어요. 같이 쓰면 되잖아요.”

그동안 무심코 지나쳐 왔던 아이들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새로운 종이는 개인 종합 연습장을 쓰기로 하였고, 구겨진 종이도 함께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 후에 교사가 했던 것처럼 구겨진 종이를 나름 펴서 바구니에 넣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구겨진 색종이는 쓰레기통으로

직행하기도 하였다. 여전히 풀지 못하는 숙제로 남아 있다. 정리 정돈 시간이 되자

“선생님, 이것도 쓸 수 있어요?”

라는 말이 들려왔다. 멈추지 말라는 아이의 독려처럼 들렸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끓어오르는 벅참이 느껴졌다. 아이들의 변화가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세 명이 되는 그날까지 실천해야겠다.



구겨진 종이를 펴서 바구니에 넣는 모습



물티슈 어디 있어요? 화장실에서 씻긴 귀찮아요.

지민이가 대변을 보고 난 후 내가 휴지로 닦아주었더니 엄마는 물티슈로 닦는다고 말했다.
영우는 손에 물감이 묻으면 손을 씻기보다 물티슈로 손을 닦기 위해 찾았다.
나는 물티슈로 닦는 것 보다 화장실에서 씻고 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귀찮은데…… 물티슈 주면 안 돼요?”
“콧물 나왔어요. 물티슈 주세요.”

물티슈를 쓰면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몸에 어떤 점이 안 좋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후에는 물이나 우유를 흘렸을 때, 서너 명이 걸레로 닦았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물티슈를 찾는다.

교직원과 협의하여 가정과 연계할 필요성을 느껴 ‘지구지킴이 챌린지’를 실시했다.
아이들에게 지구지킴이 챌린지를 한 느낌을 물었다.
“지구를 지켜서 좋았어요.”

"그냥 했어요."

나는 지구지킴이 챌린지를 하기 전에도 걸레 사용과 분리배출을 했었는지 물었다.

"아니요! 집에서는 물티슈랑 휴지 썼어요."

"먹고 그냥 버렸어요."

나는 유치원에서 매일 분리배출하고 걸레를 사용해 본 느낌을 물어보았다.



비닐 분리배출하기



물티슈 대신 걸레 사용하기

"유치원에서도 지구를 지켜서 좋았어요."

나는 분리배출과 걸레 사용을 집에서만 해야 하는지, 유치원에서만 해야 하는지 물어보았다.

"집에서도 유치원에서도 똑같이 하면 어때요?"

"난 이미 걸레하고 있어! 할머니 집에서 걸레 닦았어."

"나도야, 나는 걸레도 하고, 분리배출 하는데?!"

나에게 생태환경교육은 여태 편리함을 찾았던 습관을 모두 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불편했다. 그런데 아이들은 나와는 달리 **불편할 수 있는 수고로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이들은 벌써 반을 향해 가고 있다.

화장실에서 하는 물장난은 재미있는걸요?

"선생님, 화장실에 손 씻는 데가 넘칠 것 같아요!"

거름망에는 클레이와 종이타월로 가득 차 있어 물이 빠지지 않았고, 고여 있는 물에 휴지들이 둥둥 떠다니는 것도 아이들에게는 흥미로웠다. 몇몇 아이들은 유치원이 바다가 되었다며 고여 있는 물을 거울에 뿌렸다. 그러나 다른 몇몇 아이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불편한 듯 이야기를 했다.

"선생님, 물이 아까운 것 같아요."

"야, 그만해! 그만하라고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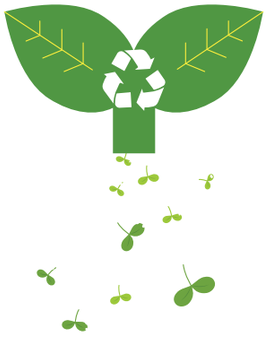
많은 쓰레기가 있는 물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물었다.

"우리가 손 씻는 걸 왜 저렇게 써요?"

"우리가 저 물을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저 물로 텃밭에 물을 주면 되겠네!"

"우리 엄마는 남은 커피를 꽃에 버렸어요."



"꽃이 커피를 먹는다고?"

"커피를 먹으면 어떻게 해?!"

"저 물 텃밭에 주면 우리가 먹는 거 아니야?"

"고구마가 싫어할 것 같은데……"

"저 물은 꽃들도 싫고, 우리도 싫고, 다 싫어해요."

"처음부터 클레이랑 휴지랑 넣지 말아요."

"물도 많이 안 써요."

물장난을 한 친구들의 행동이 지구를 지키는데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이제부터 클레이를 넣지 말고, 물을 계속 틀지 말자는 의견에 많은 아이들이 동의했다.

협의하는 동안 거름망으로 물이 많이 빠져나갔다.

"그 더러운 물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면 땅이 싫어하잖아요? 이러다가 꽃들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하, 지구야, 미안해."

클레이와 휴지, 종이타월을 직접 손으로 주워 정리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평소에 자신의 머리핀이 물에 떨어지면 교사에게 꺼내달라고 부탁했던 아이들이었는데!

그 후에도 양치할 때 물을 계속 틀어 놓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오늘은 물을 아꼈다며 자랑하는 두 명의 아이가 있었다.

3세 아이들에게는 물 오염과 물 부족은 눈에 보이거나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약해야 하는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 어떻게 상호작용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그러나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보태며 많은 시간을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 스스로 많이 느낀 것 같았다. 합의가 쉽게 나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자신의 주변 환경을 돌아보며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이들은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에서, 자신의 삶 속으로 물들고 있었다.

물이 아깝다며 울상이었던 아이.
꽃이 커피를 먹으면 안 된다는 아이.
텃밭에 더러운 물을 주면 고구마가 싫어하겠다는 아이.
클레이와 휴지를 넣지 말자는 아이.
물을 아끼자는 아이.
깨끗하지 않는 저 물은 꽃, 우리, 모두 다 싫어한다는 아이.
지구에게 미안하다는 아이의 한숨.
클레이와 휴지, 종이타월을 직접 손으로 주워 정리하는 아이들.
양치할 때 오늘은 물을 아꼈다며 뿌듯해 하던 두 명의 아이.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을래요.

아이들은 자연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의 건강은 식습관과 관계가 있고, 식습관은 생태환경에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생태환경교육은 아이의 건강한 식습관**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3세 아이들은 음식을 먹어보라고 권유를 하면 거부하는 아이들이 많았고, 밥을 먹을 때마다 권유를 하는 것도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까 조심스러웠다. 텃밭에 작물을 키워 수확된 것을 탐색하고 먹어보면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면서도 3세 아이들이 많은 음식을 접해보지 않았고, 음식의 조리방법에 따라 좋아하는 개인별 선호도가 달랐기 때문에 식습관 지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되고 있다.

어느 날, 급식에 충무김밥, 우동, 오징어 어묵볶음, 유채된장무침, 물만두찜, 귤이 나왔다. 윤기는 우동과 물만두찜, 귤만 받았다. 학부모와 상담을 해보니 평소에 잘 먹는 음식만 주어서 편식이 생긴 것 같고, 잘 먹는 음식과 함께 새로운 음식도 만들어 먹여봐야겠다고 하셨다.

먹고 싶은 않은 반찬을 받지 않는 것을 보고 다른 아이들이 모방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골고루 먹지 않아 건강에도 걱정이 되었다. 반찬을 다 받는 아이들도 남겨서 버리기 일쑤였다. 우리의 행동이 생태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또 다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도 소용이 없었다.

하루 동안 배가 고프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윤기에게 3가지 반찬 중 한 종류 반찬만 먹어보자고 제안했다. 윤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식판을 내밀지 않고 있었다. 시간이 흐른 뒤 윤기의 강하게 굽혀진 팔이 조금은 느슨해졌고, 그제야 식판을 내밀었다. 힘겹게 내민 식판에 먹기 싫은 반찬을 받아준 모습이 기특했다.

영양사 선생님께서 "어떤 것을 먹어볼래?" 물어보자, 윤기는 고개를 돌린 뒤 평소 좋아하는 친구를 보았다. 친구가 먹고 있던 모습을 보고 오징어 어묵볶음을 골랐다.

포크로 우동을 먹다가 오징어 어묵볶음에 포크가 떨어졌다. 윤기의 인상이 찌푸려졌고, 양념 묻은 포크를 한참을 보더니 새로운 포크로 바꿨다. 우동을 다 먹고 난 후, 포크에 오징어 어묵볶음의 양념을 살짝 묻혀 먹었다. 영양사 선생님께서 잘라주시자 그 중에 제일 작은 오징어를 먹었다.

"친구가 맛있게 먹어서 먹어봤어요. 조금 맛없어요."

윤기가 먹기 싫은 음식을 먹어본 작은 용기에 나는 머리를 쓰다듬고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평소에 당면을 먹지 않았던 윤기가 친구들이 잡채를 2~3번을 더 먹는 모습을 보고 잡채를 먹었다. 이번엔 많이 먹을 수 있다고 보여주기도 했다. 아이의 긍정적인 변화에 학부모도 아이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겠다고 말씀하셨다. 윤기의 변화에 다른 아이들도 손도 대지 않았던 반찬들을 포크로 뒤적거리며 조금씩 먹어보려고 했었다.

오징어 어묵볶음 양념소스가 싫어 새 포크로 바꾸던 아이가 스스로 양념을 먹어보고, 작은 오징어를 먹어본 아이의 변화가 놀라웠다. 친구가 먹는 것을 보고 먹어보려고 시도를 하는 것처럼 **실제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다.

3세 아이들은 음식의 색깔, 재료, 식감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자신이 좋아하는 익숙한 음식을 먹으려고 한다. 좋아하는 음식뿐만 아니라, 성장을 위해 고른 영양분을 섭취하며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사가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계속 고민되는 점이지만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없으니 아이들과 한 가지씩 노력해보려 한다.



먹고 싶은 음식만 받고 난 후
용기 내어 오징어 어묵볶음을 받은 모습

우유, 튼튼해지려면 먹어야 되지만 그래도 싫어요.

아이들은 흰 우유를 먹을 때 "그만 먹고 싶어요."하며 우유를 남긴다. 나 또한 유당불내증이 있고, 우유를 좋아하지 않아 아이들에게 계속 권유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우유를 잘 먹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보니 집에서 우유로 요거트를 만들어 먹는다고 하였다. 유치원에서 요거트를 만들어 보자는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요거트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나는 아이들과 요거트를 만들면서 우유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고, 평소에 우유를 잘 먹지 못했던 아이들도 먹어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했다.



요거트 만드는 과정을
즐거워하는 아이

아이들이 우유를 붓고, 숟가락으로 잘 저어 주는 동안

"어떻게 이게 요거트가 되지?"

하며 제법 진지한 표정을 짓거나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방금 섞어진 요거트와 8시간이 지난 발효된 요거트를 아이들에게 보여주었다. 도겸이가 요거트통에 숟가락을 넣고 들었다 놨다 하며 관찰했다.

"선생님, 뜨거운 물에 부은 것은 조금 굳어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방금 섞어진 것) 물 같아요."

아이들은 두 통에 담긴 요거트를 나름 비교하고 탐색하는 과정을 즐기며 냉장고에 넣기 전에 먹어 보자고 했다.

"어? 아무 맛도 안나요. 맛있어요."

"맛이 있긴 한데 여기에 레몬 맛이 나요."

평소에 유제품을 선호하지 않는 순영이가 친구들이 먹는 것을 보고 용기 내어 먹었다.

"으~ 똥 맛"이라며 인상을 찌푸렸지만 먹어봤다는 것에 기특했다. 수지는 뚜껑에 묻은 요거트를 손가락에 찍어 필사적으로 맛을 보기도 했다.

아이들은 냉장고에 숙성된 요거트를 먹고 또 먹고 싶다는 긍정적인 표현을 해주었다. 그러나 입맛에 맞지 않다고 하는 아이들이 더러 있었는데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다. 조용히 다가와서 그만 먹고 싶다며 요거트를 나에게 주었다. 우유로 요거트를 만들어 잘 먹게 하고 싶었지만 딸기잼을 섞어 달라는 아이, 섞는 것을 싫어하는 아이, 우유나 유제품을 아예 선호하지 않는 아이 등 다양하고 까다로운 입맛을 맞추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요거트를 만들면서 진지한 표정과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는 것, 평소에 유제품을 싫어하는 아이가 먹어보려 시도했다는 점에서 '요거트 만드는 과정' 자체는 흥미로웠던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점만으로도 배움의 순간이 될 수 있음을 알았다. 어떤 소재로 배우냐가 아니라 어떤 과정으로 다가가는지를 교사가 **'알아차리는 것'** 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도 미세먼지 때문에 못 나가요?

아이들은 유치원에 오자마자 "오늘 미세먼지 좋아요? 우리 엄마가 좋다고 했어요!"라며 물었다. 오늘의 공기 질에 따라 바깥놀이를 할 수 있을지 결정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화젯거리가 되었다.

에어코리아 앱을 통해 아이들에게 미세먼지 상태를 보여주었다. 아이들이 다행히 '좋음'인 것을 확인하더니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고, 박수를 치며 폴짝폴짝 뛰기도 했다.

자유놀이 시간이 끝난 후 아이가

"미세먼지 봐 봐요. 나쁨으로 변했어요?"

에어코리아 앱을 열어 다시 확인했더니, '나쁨'으로 바뀌었었다. 먼저 확인한 정한이가

"하, 나쁨으로 변했어."

라고 한숨을 쉬며 말하자 많은 아이들은 교사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나쁨'상태를 기어이 눈으로 직접 확인했고, 입술을 쭉 내밀며 바깥놀이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선생님, 미세먼지는 눈에 보여요? 미세먼지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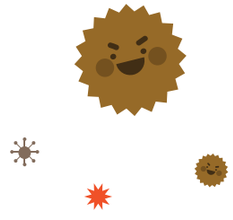
미세먼지가 궁금한 아이들에게 미세먼지가 심한 하늘 사진을 보여주었다.

"하늘이 왜 검정이예요? 이게 미세먼지야?"

"봐~! 지금은 이렇게 검은 하늘이 아닌데 가면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안 보이니까 가도 되는 거 아냐?"



"색깔은 보이잖아! 이게 다 미세먼지잖아! 나가면 우리가 다 먹잖아. 그니까 안 돼."

아이들은 나름대로 미세먼지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거나, 미세먼지 사진을 보고 스케치북에 미세먼지를 그림으로 그리는 등 각자의 방법으로 미세먼지에 푹 빠져있었다.

"오늘도 못 나가지만 여기서(유치원) 신나게 놀아요! 어디서 놀지 투표해요!"

아이들은 유치원에서 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놀이를 하자고 교사에게 제안했다. 유치원에서 재미있게 놀면 바깥놀이를 빨리 잊을 수 있다는 아이의 말도 인상 깊었다.

며칠 후 교실 앞에서 도로를 정비하기 위해 굴착기로 땅을 파고 있었다. 창문 너머 아이들은 굴착기로 흙을 많이 파내는 모습을 보고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그러나 영희는 굴착기로 땅을 팔 때마다 시커먼 흙이 날리는 모습을 보고 불편한 마음을 이야기했다.

"선생님, 먼지가 다 들어오겠어요. 문을 닫아야 해요!"

하며 창문을 닫았다.

아이들이 미세먼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도 궁금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생각과 표현에 집중했다. 우리의 일상을 방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미세먼지'를 심도 있게 다가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흥미로웠다. 이렇게 아이들은 미세먼지를 자주 마주치는 동안 **공기 질이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더 나아가 건강한 삶을 스스로 지켜갈 줄** 아는 아이들이 되어가고 있었다.



미세먼지에 대해 이야기 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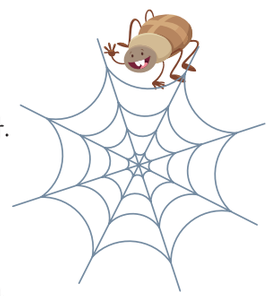
미세먼지를 표현한 그림

거미가 우리 반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으아! 징그러! 거미! 선생님! 거미가 있어요!!!!"

거미가 들어왔다는 소리에 많은 아이들이 모여들었다. 세 명의 아이가 거미를 없애려고 발을 밟으려 하거나 손으로 내리치기도 했다.

교실에 들어온 거미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거미가 교실에 쳐들어왔으니까 죽여요."

"우리 반은 자연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있는 곳인데요."

나는 우리가 있는 교실에 거미가 왜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징그럽고, 기어다니면 놀이에 방해돼요. 싫어요."

"그렇다고 거미를 죽이냐? 거미도 생명이니까 죽이면 안 되는 거야."

"자연으로 보내줘요."

나는 자연으로 보내 주는 게 어떤 뜻인지 물었더니 민호의 대답은 이랬다.

"옛날에 거미가 들어왔을 때도요, 선생님이 거미를 종이에 올리고 밖으로 보냈잖아요."

"선생님, 자연이 집이잖아요. 밖으로 보내 주는 게 어때요?"

자연이 집이라는 말에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모두 자연으로 보내는 것에 동의했다. 바깥놀이 시간이 되었고, 나는 자연에게 반갑게 인사를 했다. 그러자 아이들도 나를 따라서 자연에게 반갑게 인사를 했다.

"안녕! 나는 메뚜기랑 놀 거야! 반가워~"

"열매 딸게! 재미있게 놀게~"

며칠 후 교실에 또 거미가 나타났다.

"선생님! 거미가 교실에 놀러왔어요! 자연에 보내줘요."

"선생님! 내가 보내줄래요."

이면지를 꺼내어 거미를 조심스럽게 종이에 올렸다. 다른 아이들은 창문을 열어주었고, 거미를 자연으로 무사히 보내주었다. 나는 아이가 거미를 직접 자연에 보내준 생각과 느낌을 아이들과 공유하고 싶었다.

"집으로 갈 수 있게 해줘서 좋았어요."

아이들은 나도 해보고 싶다며 거미가 또 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거미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은 놀라운 변화였다. 거미는 이제 더 이상 우리 반에 함부로 침입한 불편한 존재가 아니었다.예전에 아이들은 개미를 밟아 줄을 세워 놓곤 해서 어떻게 하면 생명을 소중하게 느낄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작은 거미도, 우리도, **생명체가 함께 살아가는 가치**를 조금이나마 느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함께 배워가는 여정: 화분 씨앗 심기

4월 5일 식목일이 되어 '화분씨앗심기' 활동을 하였다. 아이들은 화분에 심어진 씨앗에게 사랑한다며 잘 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다. 생명을 소중하게 대하는 태도를 제법 갖추기 시작했다고 생각할 때,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야! 눈으로만 봐야 하잖아!"

"이거 누가 그랬어?"

"귀여워서 만졌어. 근데 안 뽑았어. 내가!"

새싹들이 자리를 잡을 때 쯤, 누군가에 의해 다 뽑혀 있었다. 아이들의 언성이 높아져 갔다. 씨앗이 잘 자라길 바라며 즐거웠던 마음은 온데간데없고 '누가 다 뽑았는지'를 두고 서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 바빴다.

나는 아이들에게 뽑힌 새싹을 보고 왜 속상한지 물었다.

" 눈으로만 봐야 하는데, 죽어버렸잖아요. 우리가 고생해서 키운 건데요."

" 아기였는데, 불쌍해요. 세게 만져서 그런 거예요."

" 아니야. 예쁘다고 귀엽다고 할 수 있잖아."

토마토, 가지가 자랐어야 할 빈 화분에 다른 씨앗을 심을지, 오이만 키울지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오이만 키우자고 했다. 오이 새싹이 자라났고, 아이들은 새싹들을 만질 때 힘을 조절하여 쓰다듬는 행동들도 보였다.



오이 잎을 만지며 관찰하는 모습

"왜 오이 잎이 까슬까슬해요? 어? 소리 난다? 큰 것은 소리가 나요."

나름 잘 자라고 있는 오이를 관찰하고, 큰 잎과 작은 잎을 탐구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을 때 쯤 방학이 되었다.

개학날 아침, 방학 동안 교실에서 자라고 있었던 오이를 마주한 순간 충격이었다. 오이 잎들은 노란색으로 변해있었고, 많이 열려있었던 작은 오이들은 시들시들해졌으며 가장 크게 자랐던 오이는 곰팡이에 쌓여있었다. 징그럽다며 한걸음 물러났지만 시선은 오이를 향해 있었다. 호기심 강한 아이들은 빵 칼로 잘라보고 싶다고 하였고, 인상까지 찡그리며 온 힘을 쏟아 오이를 잘랐다. 그리고는 오이를 땅에 묻자고 제안했다. 아이들은 시든 오이를 두 손으로 가져갔다. 놀이터에 있는 놀이도구함에서 모래놀이 삽을 꺼냈다. 오이 무덤을 만들기 위해 모래놀이터 아닌 텃밭으로

향했다. 모래놀이 삽으로 흙을 파려고 하지만 아이들의 힘으로 하기에는 땅이 딱딱했다. 아이들은 주변을 살펴보더니 돌멩이를 가지고 힘껏 파내기 시작했다. 오이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의 구멍이 만들어졌고, 오이를 넣고 흙을 덮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오이 무덤을 만들었다.


오이 무덤

"안녕~잘 가! 우리는 여기서 놀고 있을게"
"너무 보고 싶어. 너도 그래?"
"나도 보고 싶지. 오이야, 잘 지내!"
"선생님도 보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도 보고 싶지~"

그리고는 오이 무덤에 꽃, 돌멩이 꾸며주며 땅에 묻힌 오이에게 애정을 표현하였다. 놀이터에서 놀다가 오이 무덤이 잘 있나 기웃기웃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아예 곁을 떠나지 못한 아이들도 있었다. 나는 아이들의 오이에 대한 애정한 마음을 지켜주고 싶어 푯말에'오이 무덤'을 써서 세워두었다. 그 다음날 아이들은 바깥놀이 시간에 텃밭으로 가서 오이 무덤이 잘 있는지 살폈고, 오이 무덤 옆에 있는 글자가 무엇인지 궁금해 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이 오이 무덤을 만질까봐 걱정이 되었던지 '만지지 마세요.'글씨를 적어달라고 했다. 아이들은 바깥놀이터에 올 때마다 오이 무덤을 살피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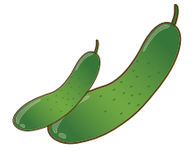
며칠 후에도 아이들은 바깥놀이 시간에 어김없이 오이 무덤으로 향했다.
"선생님, 이름이 사라졌어요. 돌하고 꽃들도요."
"야, 괜찮아. 그거 없어도 오이 무덤 여기잖아."

아이들은 푯말이 없어도 오이 무덤의 위치를 찾아냈고, 돌과 열매로 다시 꾸며주었다.
두 달이 지났을 쯤에는 오이 무덤에서 풀이 자라났다.
"선생님, 오이 무덤에 풀이 자라났어요."
"우와 귀엽다. 신기해~ 오이 풀에 물 줘도 돼요?"

아이들은 풀에 이름 지어주며, 새로운 생명체의 탄생을 경이롭게 느끼고 있었다. 그때부터 바깥놀이 시간에는 계속 오이 무덤과 오이 풀을 살폈다.

어느 날, 태형이가 오이 무덤을 파기 시작했다.
"선생님, 오이가 없어요!"
"야!!!!! 오이 무덤을 왜 파!!!!!!"

"이제 오이 풀이 된 거 아냐?"
"이제부터는 오이 풀을 키우자."
"오이 풀아, 섬서구메뚜기랑 놀아 봐."
"개미랑도 놀아봐."
아이들은 개미와 메뚜기를 오이 풀에 놓으며 오이 풀과 행복한 바깥놀이 시간을 보냈다.



교사와 아이들이 자연을 마주하는 방법이 달랐다. 나는 아이가 오이 무덤을 파고 있을 때 멈추길 바라기도 했고, 아이들이 오이 잎들을 만질 때 잎이 뜯어질까 봐 조마조마하기도 했었다.나는 자연을 만날 때 눈으로만 봐야 자연을 지켜준다는 마음이 컸던 것 같다. 그러나 아이들은 흥미로운 생명체를 만지며, 냄새 맡기도 하고, 때로는 꺾기도 하며 **자연을 친숙하게 옆에 두고** 다양한 방법으로 만났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자연을 만나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농사 초보 교사의
상상으로부터 시작된

좌충우돌 꼬마 농부들의 텃밭 이야기



파와 당근이 들어간 떡볶이가 맛이 있을까?

볶아 볶아 채소를 품은 쇠고기 볶음밥 먹어볼까?

아기 수박 이야기

슬근슬근 톱질하세~

또르르르 가을밤을 만나요

환경을 위한 생활 가능하겠어?

모시송편아, 우리가 간다~

호박 선생님과 꼬마 농부 이야기

호박선생님과 꼬마농부들

나는 특수교사로 통합반을 포함하여 7명의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다.

급식 시간이 되면 당근, 양파, 파 등을 골라내기 바쁜 아이들을 보면서 전직 영양사이기도 한 나이기에 아이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하도록 하고 싶었다. 또한 텃밭으로 날아온 나비를 아무렇지도 않게 잡아 가두고, 벌레를 발로 밟아버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텃밭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식습관도 개선해 보자고 마음먹었다. 처음에는 물을 서로 뿌리며 장난하고 모종도 밟아버리던 아이들은 자기 이름표가 붙은 모종이 쑥쑥 커가니 신이 나기 시작했다.

이 모종이 급식 시간에 골라낸 당근과 호박, 파라고 알려주니 아이들은 더욱 놀라워했다. 아이들과 함께 떡볶이, 자장면, 볶음밥 등을 만들어 먹는 동안 먹을 수 있는 채소의 가지 수가 점차 늘어갔다. 또한 가정으로 우리가 키우는 채소를 보내고 여름 오이와 줄기줄기 넝쿨에 열린 호박은 초등학교 형님들도 초대해서 함께 나누었다. 나와 아이들의 얼굴은 까매지고 손도 거칠어져 가지만 우리는 텃밭과 함께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매일 즐겁게 생활하는 아이들은 이제 텃밭의 식물을 키우면서 “잘 자라라, 사랑해, 내일 또 만나.” 등의 애정 어린 말들을 한다. 우리 학교의 밤나무와 감나무에서 열매를 주우면서도 “나무야 고마워”라고 말하는 친구들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번엔 무엇을 키워서 맛나게 먹어볼까?’ 아이들과 즐거운 상상에 저절로 미소 지어진다.



농사 초보 교사의 상상으로부터 시작된 좌충우돌 꼬마 농부들의 텃밭 이야기





파와 당근이 들어간 떡볶이가 맛이 있을까?

"매워서 먹기 싫어요,"
"당근도 맛이 없어요. 안 먹을래요."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아이들과 직접 요리해서 먹는 시간을 가졌다.
텃밭의 당근과 파를 뽑아서 직접 썰어서 떡볶이를 만들었다.
도윤이는 파와 당근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미리부터 자기는 안 먹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채소를 썰고 떡과 고추장을 넣어 볶아 맛을 본 아이들이 말했다.

"선생님 이상해요~ 파와 당근 맛이 안 나요. 맛있어졌어요. 하하~"
"선생님 떡볶이 또 만들어요!"
텃밭의 채소들이 맛있는 음식으로 변신하는 순간이었다. 무엇이든지 만들어 보고 씩씩하게
먹어보는 우리 친구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떡볶이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는 간식 중 하나이지만 아이들은 파와 당근이 들어가면 떡볶이를 먹지 않을 거라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로 만들어 보니 파도 당근도 떡볶이와 함께 맛있게 먹으며 "선생님 떡볶이 또 해 먹어요. 이제 파도 당근도 먹을 수 있어요."라고 아이들이 말해주었다. **파와 당근은 많은 유아가 싫어하지만, 떡볶이로 요리해 먹어보았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앞으로 텃밭의 채소들로 시각, 미각, 촉각 등의 다양한 경험을 함께 해봐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볶아 볶아 채소를 품은 쇠고기 볶음밥 먹어볼까?







텃밭에서 파, 호박, 가지 등을 직접 수확하여 아이들과 볶음밥을 만들어 먹었다.
지난 시간에 매운 파와 안 좋아하는 당근을 떡볶이로 만드니 신기하게 맛있다고 말했던 아이들~ 이번엔 어땠을까요? 볶음밥의 채소가 맛있다고 했다.
와~ 성공!!
맛있고 즐겁게 먹은 후 우리가 만든 볶음밥을 원장선생님, 선생님들께 나누어 드렸다. 집으로도 채소를 보내서 집에서도 엄마와 함께 볶음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였다.
채소가 많아서 싫은데 이상하게 볶음밥이 맛있다고 친구들이 이야기해 주었다.
아마도 그건 친구들의 식물을 가꾼 정성과 함께 만든 손맛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닐까? 앞으로 계속 채소들로 맛있게 만들어서 먹어야겠다.

우리가 자주 먹는 파, 당근, 양파, 가지 등은 쉽게 텃밭의 작물로 도전해 볼 수 있었다. 매일 물을 주고 양분을 주고 관심을 가진다면 작물이 잘 자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아이들이 물을 줄 때도 "잘 자라라~" 말을 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배움 텃밭에 담아야 할 가치

학습자가 주체가 되기, 아름답고 멋스러운 공간 만들기, 생물다양성 존중하기,
풍년을 기대하되 배움을 놓지 않기,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기, 생명의 주기 이해하기,
편리성과 안정성을 함께 고민하기, 생태순환 이해하기

〔출처: 아이들의 놀이터 배움 텃밭 정원, 김시환·이선미, 지식부터, 2023〕

아기 수박 이야기

무더운 여름날 수박을 간식으로 먹은 후 수박수영장이라는 책을 읽어주었다. “실제로 수박에 들어간다면 어떨까?”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얼떨떨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우리 실제 수박으로 수영장 만들기 놀이할래요?”

친구들 사진을 코팅해서 시원한 수박 속으로 초대하였다.

“선생님 우리 텃밭에 수박 있어요? 심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심어 볼까요?”

4월에 심은 수박 모종은 영영 소식이 없었는데 방학을 지나고 8월이 되니 동그랗고 귀여운 수박이 열렸다. 믿음이는 수박을 발견하더니

“선생님 방학 내내 수박이 자랐나 봐요.”

그때 갑자기 씩씩한 사랑이가 아직 익지도 않은 수박을 확 따버렸다.

아이들은 모두 울상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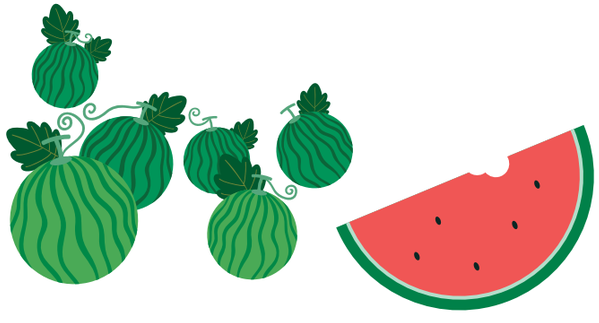
“사랑이 안돼, 아직 아가 수박이야.” 유리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일단 교실로 가져가는데 옮기는 중 실수로 사랑이가 수박을 떨어뜨렸다. 수박 향이 온 교실에 퍼졌다. “와~ 수박 냄새다!” 작은 수박에서 수박 향이 나니 신기한 아이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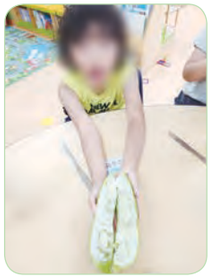


달콤한 수박 냄새가 난다며 이야기하다가 우리 소망이가 격파로 먹자고 제안했다. 말보다 눈빛으로 통하는 삼 형제는 얼른 손과 주먹으로 수박을 격파했다. 그 바람에 수박은 산산조각이 났지만 정말 달고 맛났다.

아이들은 수박을 텃밭에서 기를 수 있다는 것을 마냥 신기해했다. **음식물 처리기에서 만든 퇴비를 수박을 위해서 주기로 했다.** 수박을 먹지 않는 온유도 오늘 처음으로 수박을 먹어보고 웃었다. 살짝 참외도 심어놓았는데 친구들이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슬근슬근 톱질하세~



흥부와 놀부 전래동화를 듣고 유치원에서 박을 직접 따서 갈라보며 이야기해 보았다.

예쁜 박을 같이 따보고 즐겁게 지냈다. 박은 우리 친구들이 예상한 대로 손으로 격파해서 가를 수도 없었고, 스테인리스 빵 칼을 써서 가를 수도 없어서 교사가 안전하게 칼로 나눠주었다. 흥부의 박속처럼 쌀과 돈이 들어있는지 기대하면서 갈라본 박은 하얀 속살과 씨만 있어 유리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줄기를 이룬 작두콩은 속을 갈라서보니 어떻게 이렇게 큰 씨앗이 있었는지 너무너무 신기했다.

“선생님! 이런 큰 콩 처음 봤어요.”

“정말 크구나. 믿음아 작두콩이란다.”



식물을 직접 길러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을 보면서 우리 유치원 친구들의 생태 감수성이 쑥쑥 자라나는 순간이었다. **식물이 잘 크라고 물도 더 주려고 하고 “잘 자라라”라고 이야기도 해주면서 소중하게 가꾸게 되었다.** 이번 박은 잘라서 나물로 만들고 작두콩의 콩은 밥에 넣고 먹어보고 콩 주머니는 자른 후 볶아서 차로 끓여 먹기로 하였다.

온유가 갑자기 수세미 껍질을 벗긴 것을 보더니“선생님 집에 있는 수세미랑 비슷해요.”한다.

“그래? 그럼 다음에는 수세미를 따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과연 수세미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그동안 수세미를 키우려고 노력했는데 물과 양분을 더 줘보기로 했다. 그리고 작두콩을 말려 보기로 하였는데 과연 차로 만들 수 있을까?

궁금하고 또 궁금하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텃밭 활동을 통해 교사인 나도 새롭고 즐거운 경험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

또르르르 가을밤을 만나요





바람이 부는 어느 날 소망이가 자꾸 하늘을 바라보았다.

"소망아! 무엇을 보고 있니?"

"으으"

말을 배우고 있는 소망이의 눈길을 따라서 가보니 열매가 벌어지고 있는 밤나무가 있었다. '아! 밤을 보고 있었구나.'

아이들에게 날카로운 가시를 주의시킨 다음 함께 밤을 줍기로 했다.

"밤은 이렇게 날카로운 가시집에서 크고 있었단다. 밤을 한번 쪄서 먹어볼까요?"

"선생님 좋아요. 야호, 신난다!"

밤이 익어가는 동안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기를 하였다. 알밤이 들어있는 밤송이는 일부러 유치원으로 가져와서 모두 관찰해보기로 하였다.

"우리 바람에 떨어지는 밤이 되어볼까요?"

"저는 또르르르 굴러갈래요. 하하하. 재미있어요."

익은 밤은 먹기 좋게 절반으로 나누어 아이들과 한입씩 먹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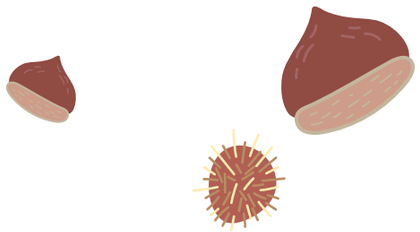
"선생님 맛있어요."

"내일 또 가요."

"선생님도 우리 학교 주변에 밤나무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우리 또 가봐요."

우리가 시장에서 사야 먹을 수 있는 밤을 나무 아래 떨어진 밤송이로 보니 정말 신기했다.

학교가 산속에 있어서 밤나무, 도토리나무 등 자연 관찰할 나무가 있는 것이 너무 감사했다.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 친구들과 함께 더 이야기 나누었다.



환경을 위한 생활 가능하겠어?



"선생님 우유갑을 왜 모아야 해요?"

"우유갑을 그냥 버리면 쓰레기가 되지만 모아서 다시 활용하면 다시 쓸 수 있단다. 우유갑, 페트병, 다 쓴 건전지를 행정복지 센터에 가져가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바꿔주는데 우리 한번 모아볼까요?"

밴드로 부모님과 소통하고 있어서 우리들의 의견을 학부모 소통 밴드에 올려서 가정에서 함께 재활용품을 모으기로 하였다.

행정복지 센터로 가니 직원들이 웃으면서 반겨주셨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건전지, 우유갑, 페트병을 많이 모아 왔어요."

"이렇게나 많이 모았나요?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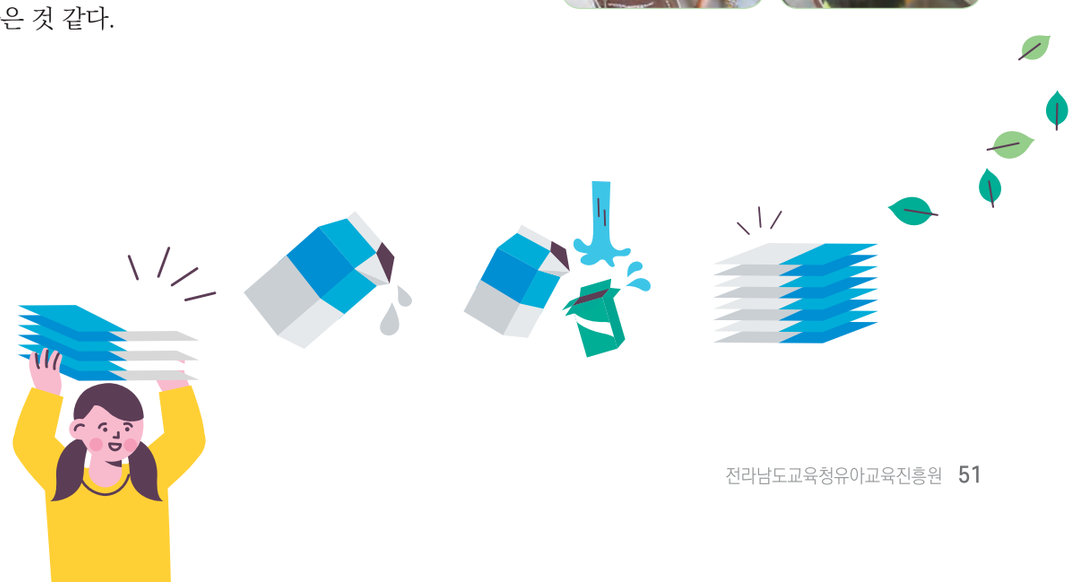
동사무소 직원분들께 칭찬을 많이 받고, 아이들은 모은 우유갑 200개, 건전지 151개, 페트병 50개를 10ℓ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바꾸어 왔다.

무려 무려~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50장이나 받아왔다. 뿌듯해진 아이들은 계속 모아서 가을에도 한 번 더 가자고 하였다.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생활 속에서 매일 마시는 우유갑을 모으는 것, 우리 가족이 마신 생수병과 음료수 페트병을 모으는 것, 다 쓴 건전지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모으는 것이 환경을 위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다. 이런 노력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생활 습관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 참 좋은 것 같다.



모시송편아, 우리가 간다~





손의 감각이 예민하여 만지는 것이나 손에 묻는 것을 싫어하지만 클레이는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클레이와 비슷한 질감의 모시송편 반죽을 제시해 보기로 하였다. 추석 활동으로 한복을 입었는데 한복을 입어본 적이 없는 소망이는 한복의 재질이 싫어서 옷을 던져버리고 멀리 가버렸다. 소망이를 앉히고 30분 이야기를 나눈 끝에 한복 윗도리 입기에 성공했다.

친구들은 어른들께 큰절하고 운동장에 나가서 전통 놀이도 하였다. 추석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추석에 먹는 송편 이야기가 나왔다.

"선생님 떡을 먹고 싶어요."

"아! 유리는 송편을 먹고 싶구나. 그럼 우리 다 같이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미리 준비한 모시 반죽과 소로 모시송편을 만들었다.

"다 같이 반죽을 만져보아요. 어떤 느낌이니?"

"선생님! 클레이 같아요."

"만질수록 말랑거려요."

"으아."

소망이는 만지다가 반죽이 손에 묻어서 싫은지 찡그려서 씻고 오도록 하였다

"우리 한번 냄새를 맡아 볼까요? 무슨 냄새가 나나요?"

"풀냄새가 나요."

"밀가루 냄새 같아요."

"친구들 말대로 풀냄새 나고 밀가루 냄새도 나네요. 이건 바로 모시 반죽이라고 해요."

손에 다른 감촉이 닿는 것을 싫어하는 소망이 인데 끝까지 만들어서 자랑스럽게 송편을 보여주었다.

"소망아 칭찬의 박수를 받아요~ 너무 잘했다."

"아~ 선생님 근데 달콤한 냄새가 나요."

"송편이 익으면서 달콤한 냄새가 나고 있네요. 보고 싶나요?"

"네, 네"

"그럼 한명씩 선생님 손잡고 안전하게 보도록 해요."

"아~"

"송편이 익어가고 있나요? 어떤가요?"

"더 초록 초록해지고 있어요."

"맛있는 냄새가 나요. 먹고 싶어요."

"얼른 먹고 싶어요."



아이들과 함께 만든 모시송편은 맛있게 쪄져서 배불리 먹고 더욱 즐거운 추석이 되었다.

처음에는 송편 반죽을 만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준비했는데 즐겁게 만들어 주니 고마울 따름이었다.

평소에 먹었던 음식과 냄새나 식감이 다른 음식은 유아들이 먹기가 힘들 수 있다. 명절에 먹는 모시송편 재료를 준비해서 함께 만들어 본 송편! 손의 감각이 예민해서 이물질이 묻는 것이 싫어서 중간에 손을 씻는 유아들이 2명 있었지만, 끝까지 활동하고 맛있게 먹었다. 새로운 음식을 제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시도해보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



호박 선생님과 꼬마 농부 이야기

"와 호박이 귀여워요."
"선생님! 호박을 따고 싶어요."
"그럼 호박을 따서 맛있게 요리해 볼까요?"
"오늘은 호박과 양파, 당근을 따서 자장밥을 만들어 보아요."
"와~ 신난다!"
유치원과 운동장 사이에 잔디밭이 있는데 호박넝쿨이 자유롭게 뻗어나가고 있었다.
아이들은 호박이 귀엽다면서 끙끙대고 호박을 잡아당기는데 생각만큼 쉽게 따지지 않았다.
어느새 아이들은 커다란 무 동화처럼 힘을 모으고 있었다.





"영차 영차~ 믿음아 힘을 내!"
"유리야 오빠 뒤에서 잡아 당겨줘."
"영차~ 영차~"
"선생님이 조금 도와줄까요?"
가위로 살짝 잘라 드디어 귀한 호박을 수확하였다.
호박은 꺾어 누르면 쉽게 딸 수 있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기다려보았다.

아이들과 함께 텃밭에서 따온 호박, 당근, 양배추, 돼지고기를 넣고 자장밥을 만들었다.
"선생님 당근이 안 썰어져요"



"유리야 손에 힘을 줘서 천천히 썰어 보아요."
"우리 친구들 모두 차근차근 잘 썰고 있어요. 끝까지 스스로 해 보세요."
아이들이 직접 따고 썰어서 볶은 자장밥은 너무도 맛있게 만들어졌다. 호박의 대변신이었다.



"선생님 지난번 만든 떡볶이도 다시 하고 싶어요."
"믿음아 떡볶이를 먹고 싶구나. 다음 요리 시간에 다시 한번 해 보자."
"야호~ 신난다!"
호박은 마트에서 흔하게 볼 수 있지만 호박이 자라는 모습을 보기는 쉽지 않다. 암꽃과 수꽃을 함께 구분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활동이 되었다. 호박이 넝쿨이 져서 자라는 모습을 흉내 내 보고 "잘 자라라." 물을 주면서 애정을 가지고 키웠다. 진지하게 호박을 키우는 친구들을 보면서 호박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유아들과 텃밭 활동하면서 읽은 동화책



꼬마농부의 사계절 텃밭책 (이마주)



으샤으샤 당근 (책읽는곰)



고구마유 (킨더랜드)



왜 채소를 먹어야 해? (길벗스쿨)



나도 지구를 구할 수 있어요! (도서출판 까불이)



네 번째 이야기

씨앗 선생님과
새싹 아이들의

소소(작지만 소중)한 지구사랑 이야기

4세 아이들과 함께하는 현직 연구원 2년 차.

숲속 놀이터로 가기 위해 산길을 오를 때면 아이들은 늘“힘들어요. 다리 아파요.”라며 울먹인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길가에 핀 작은 들꽃과 나무들, 나뭇가지 사이 거미줄과 무당거미를 보느라 정신이 없다. 놀이터에 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온다. 이 멋진 자연과 계속 함께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나무와 곤충에 관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인간 중심적 사고가 아닌 생태 전환적 사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올해에는 채식의 중요성과 자원순환에 대해 알아보고 실천해 보려고 한다.

작은 씨앗에서 싹이 나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지구사랑에 대한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현장에 씨앗이 되고 시작점이 되길 기대해 본다.



자연의 맛, 바른 먹거리를 찾아서

얘들아, 텃밭 만들자
깻잎쌈, 상추쌈, 너도 먹을래?
우리는 왜 채소를 먹어야 할까?
우리가 고라니한테 옥수수를 준 거예요?

우리가 버린 옷은 어디로 갈까?

난 새 옷이 좋아
안 입는 옷은 어떻게 하지?
옷의 변신, 요건 몰랐지?
요셉 아저씨처럼 우리도 그림책을 만들어 볼까?
나보다 네게 더 잘 어울려

나는야 우리 동네 환경 지킴이

쓰레기는 왜 주워요?
누가 쓰레기를 버린 거야?
우리가 주운 쓰레기, 뭐가 있을까?

씨앗 선생님과 새싹 아이들의 소소(작지만 소중)한 지구사랑 이야기





자연의 맛, 바른 먹거리를 찾아서

얘들아, 텃밭 만들자

우리 유치원은 뒤쪽에 산이 있고, 산을 오르다 보면 평평한 땅과 커다란 화분도 있어서 생태교육하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유치원 건물 뒤편에 있는 화분으로 상자 텃밭을 만들기로 했다. 우리 반은 어떤 채소를 심을까?

의견을 주고받은 끝에 토마토와 작두콩, 상추를 심기로 했다. 텃밭 가꾸기를 처음 해보는 아이들도, 이미 해본 아이들도 다들 즐거워하고 궁금해했다. 상자 텃밭에는 거름과 흙을 잘 섞어두고 며칠 후 토마토 모종을 심었다.



은성: 집에서 토마토 길러 봤어요. 나중에 키가 커져요.
아인: 그럼 상추는 어디에 심어요?
교사: 토마토 사이에 심어 보자.

다음날 유치원 뒷산에 텃밭을 만들었다. 돌을 골라서 한쪽으로 치우고 흙을 만져 물이 지나갈 수 있는 물길도 만들어 주었다. 흙을 다듬으며 자세히 살펴보니 열심히 일하는 개미와 곤충들이 보였다.



규원: 선생님 왜 이렇게 돌이 많아요?
아인: 돌이 많으면 넘어지고 씨앗도 심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치워주자.
연우: 이 돌은 너무 커서 못하겠다. 서준아, 우리같이 하자.



규원: 여기 개미 지나간다. 어디 가는 걸까?
지윤: 먹이를 가지고 집에 가나?
아인: 선생님, 여기에 옥수수 심고 싶어요.

혼자 들기 무거웠던 돌도 함께 들고 서로 도와서 뒷산에 멋진 텃밭을 만들었다. 우리 반은 옥수수와 들깨를 심고 다른 반들은 호박, 토마토, 양배추, 부추 등을 심었다.





윤선: 선생님 왜 옥수수를 2개 심어야 해요?
교사: 옥수수는 키가 크니까 서로 기대서 넘어지지 말라고 2개를 심는 거래.

연우: (들깨 모종을 보며) 이건 뭐지?
소윤: 이건 깻잎이야. 집에서 먹어봤어.
혜성: 그럼 우리도 점심시간에 고기에 싸서 먹어보고 싶다.



텃밭에 옥수수와 깻잎을 심고 "잘 자라거라"하며 물을 주었다. 교실로 돌아와서 나중에 식물들이 자라면 어떤 모습이 되고 어떤 요리를 해보고 싶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텃밭을 만드는 활동을 통해 **흙과 친해졌고, 흙 속에 있는 작은 생명체에게 말을 걸어 보고 교감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몸소 깨닫게 되었다. 무거운 돌을 힘을 모아 옮기고, 흙을 다지는 등 함께 만든 우리의 텃밭이 더욱 귀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아이들이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채소 먹기를 권한다. 하지만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채소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많지 않다.

직접 식물을 심고 가꿔보는 경험을 통해 채소의 소중함을 깨닫고 텃밭 식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건강한 식습관과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깻잎쌈, 상추쌈, 너도 먹을래?

"오늘은 초록놀이터로 놀러 가자~" 산속 놀이터에 오를 때면 우리가 심었던 작물이 잘 자라고 있나 살펴본다. 다행히도 며칠 전 내린 비를 맞고 호박, 고추, 아욱, 토마토 등 많은 채소가 쑥쑥 자라나 있었다.



규원: 어제 비가 와서 쑥쑥 더 큰 거 같아.
정민: 깻잎이 많이 컸어요. 내 손보다 더 커요.
규원: 이거 좀 봐! 앞에는 초록색이고 뒤에는 보라색이야.
정민: 위에는 크고 아래 잎은 작네.
규원: 이걸로 무얼 해서 먹을까? 난 집에서 먹어봤어요.
서준: 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이들은 **깻잎의 냄새도 맡아 보고 색과 크기도 관찰**하며 깻잎을 따서 모았다.

유치원에 있는 텃밭 상자에는 상추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점심 식단에 수육이 있다는 걸 보고 온 터라 우리가 수확한 상추와 깻잎으로 쌈을 싸서 먹기로 했다.




연우: 상추에 구멍이 있어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은설: 그럼 약을 안 하니까 벌레가 있는 거고, 좋은 상추야. 엄마가 말해줬어.
정민: 상추에 배추 애벌레가 있는거 봤잖아?. 잘 씻어야해.

아이들은 평소에는 잘 먹지 않던 상추, 깻잎도 맛있게 먹었다.



윤선: 선생님 더 주세요. 진짜 맛있어요.
소윤: 이 깻잎도 맛있어.
규원: 난 깻잎은 싫어. 안 먹고 싶어.
교사: 그럼 우리 조금만 먹어 볼까?
(깻잎을 나누어 조금씩 먹게 했더니 아이들은 '도전!'을 외치며 맛있게 먹었다)

자신들이 직접 심고 따고 씻어서 먹는 상추는 다른 맛인지 맛있게 꼭꼭 쌈을 싸 먹었다. 평소 채소는 잘 먹지 않던 서준이도 조금씩 나누어 먹다 보니 어른 손바닥만 한 깻잎 한 장을 다 먹었다. 아이들의 미각은 어른들의 미각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새로운 맛에 어른과는 다른 방식으로 반응한다. **천천히 조금씩 먹어보며 아이들은 새로운 맛을 배운다.**

아이들은 유치원에서 먹었던 상추가 맛이 있다며 집에서도 먹고 싶다고 했다. 상추를 수확해 가정으로 조금씩 나누어 보냈더니 집에서도 잘 먹었다며 인증 사진을 찍어 보내 주었다. 동생과 함께 상추를 싸 먹기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샌드위치를 만들고 샐러드, 겉절이 등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먹었다고 한다.






우리는 왜 채소를 먹어야 할까?

우리 유치원에서는 6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채식 권장 주간을 운영하였다.

급식실에서 배부되는 식단표를 보면서 점심에 어떤 음식이 나오고 어떤 재료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채소로 만든 음식에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찾아보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혜성: 콩나물국이니까 콩나물이 들어가죠?
소윤: 이번 주 과일은 수박하고 토마토가 있어요.
연우: 김치는 배추로 만드니까 배추가 채소다!
교사: 가지나물도 있고 숙주나물도 있네~!

점심 식사 후에 내가 먹은 음식 속에 어떤 채소나 과일이 들어있는지 알아보고, 해당하는 재료에 동그라미를 그려 빙고를 만들었다.



교사: 가지볶음이 나왔으니까 가지 먹은 사람은 동그라미 해보자.
규원: 오늘 된장국에 호박 나왔잖아요.
서준: 한 줄이 됐어요. 난 빙고 완성~~
교사: 가지나물도 있고 숙주나물도 있네~!

아이들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얼마나 다양한 채소가 들어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빙고 놀이를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재료들을 먹어보고 싶어 했다.

아이들과 함께 급식을 먹다 보면 아이들은 가정에서 먹어보았던 음식은 먹지만 처음 본 음식이나 채소는 선뜻 시도하지 못한다. **먹기 싫어한다고 그냥 두기보다는 조금씩이라도 먹어보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

"돈가스 더 먹고 싶어요" 정민이의 식판에는 다른 반찬은 그대로 있었다.

"난 채소 안 좋아하는데 왜 먹어야 해요?

아이들과 함께 기후변화와 육식에 대한 영상을 보며 육식을 줄이고 채소를 먹어야 하는 이유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의 몸은 달라지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지구의 모습도 달라진다.**

우리는 왜 채식해야 하나요?

우리 모두 채식을 한다면 수백억 동물들을 먹기 위해 기르고 죽이지 않아도 되고 가축과 인류는 밀집 사육으로 인한 감염병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한 사료를 재배하기 위해 만든 무분별한 목초지 개간을 멈추면 열대우림은 다시 울창한 숲이 될 수 있다. 열대우림이 복원되면 탄소 흡수량이 늘어나고 생물다양성이 높아지게 되게 될 것이다. 또한 가축사육에 들어갔던 물과 육류를 이동할 때 발생하는 탄소와 축산동물이 배출하는 막대한 온실가스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출처:기후 미식·이의철·위즈덤하우스. 2022년〉
〈출처: 유튜브, 기후변화와 육식 기후-위기를 멈추고 사람과 동물 모두를 즐겁게 하는 방법 바로 채식! (교육용 애니메이션), 환경운동연합〉

우리가 고라니한테 옥수수를 준 거예요?

산속 텃밭에 갈 때마다 우리는 옥수수에 물을 주고 쑥쑥 커가는 옥수수를 흐뭇하게 쳐다보곤 했다. 그러던 6월 어느 날 옥수수가 넘어져 있고 땅이 파헤쳐져 있었다. 도우미 선생님이 고라니가 와서 그런 것 같다고 했다. 우리는 쓰러진 옥수수를 다시 심어주고 다음부턴 고라니가 땅을 파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산에서 내려왔다.

며칠 후 텃밭에 도착해서 옥수수를 찾았을 땐 옥수수는 없고 땅은 마구 파헤쳐 있었다.

"우리가 심은 옥수수가 하나도 없어요."

"고라니가 먹었나 봐요. 우리가 힘들게 심었는데 고라니 나빠요."

물도 주고 열심히 키운 옥수수를 먹어버린 고라니가 밉다고 계속 투덜거렸다.

"고라니는 너희들한테 많이 고마워할 텐데. 배가 고프고 먹을 게 없었는데, 너희들이 먹이를 준 거잖아."

"하하, 우리가 고라니한테 옥수수를 준 거예요?"

"그럼 너흰 고라니한테 맛있는 먹이를 준 멋진 친구들이야."

화를 내던 아이들은 웃으며 고라니를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다. 교실에 와서 고라니 텃밭을 함께 읽었다.



숲속 텃밭에 소중히 기르고 있던 채소를 어느 날 고라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러자 화가 난 김씨 아저씨는 텃밭의 침입자인 고라니를 잡기 위해 새총을 쏘려고 했다. 그러나 눈앞에 나타난 건 어미 고라니와 새끼 고라니.

고라니가 밉기도 했지만, 새끼 딸린 어미 고라니를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아저씨는 텃밭을 망친 고라니를 위해 텃밭을 둘로 나누어 채소를 다시 심었다는 이야기

김씨 아저씨라면 텃밭을 어떻게 했을까?"

고라니가 못 오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아이들도 새끼 고라니와 엄마 고라니가 배가 고파 죽을 수 있으니 나눠주면 좋겠다고 했다.

"울타리를 쳐서 아저씨 거하고 다른 쪽은 울타리를 없애서 고라니 먹으라고 할래요."

우리 옥수수를 먹었다고 원망했던 아이들이 생각을 바꾸자, 옥수수를 고라니한테 준 멋진 아이들이 되었다. 뉴스에서 자주 들려오는 멧돼지와 산짐승들이 생각났다. 위험한 도로를 건너서 마을까지 내려와 농작물에 해를 입힌 이유는 무엇일까? 배를 채우지 못한 새끼들에게 먹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행동이겠지. 사람들이 개발하고 동물들의 영역을 침범하니 생기는 일인 것 같아 안타깝다.

고라니가 옥수수를 망친 골칫덩이가 아닌 **함께 나누는 생명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버린 옷은 어디로 갈까?

난 새 옷이 좋아

아침 시간 연우가 화려한 분홍색 치마를 입고 교실로 들어왔다.

"와 이쁘다~" 친구들이 소리쳤다.

"나도 분홍색 치마 사주라고 해야지. 반짝이 너무 예쁘다 한번 만져볼래."

며칠 전 새 옷을 입고 왔던 현지가 부러워하며 말했다.

"너도 얼마 전에 예쁜 하얀색 치마 샀잖아!" 아이들이 말했다.

옷을 언제 사야 하는지 물어보니 옷이 찢어지거나 작아졌을 때 더러워졌을 때 산다고 했다.

그러자 혜성이는 옷이 더럽다고 새로 사지 말고 옷을 빨아서 입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래도 옷에서 냄새가 많이 나면 새로 사야잖아. 우리 엄마는 생일날이 되면 예쁜 옷을 사줘요. 우리 할머니도 사줘요." 생일선물로 옷과 장난감을 많이 받는다고 했다.

그러자 아인이는 예쁜 공주 드레스가 좋은데 엄마가 많이 안 사줘서 속상하다고 했다.

예쁘고 멋진 옷을 입고 싶은 건 모두에게 있는 마음이다. 해마다 옷을 사는데도 옷장을 열어보면 입을 옷이 없다고 말하는 어른들, 친구의 예쁜 옷을 보고 또 옷을 사주라고 하는 아이들의 마음은 같다. 하지만, **입을 옷이 없는 옷장에는 옷들이 계속 쌓인다. 우리가 입었던 옷들과 입지 않아 쌓인 옷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안 입는 옷은 어떻게 하지?

아이들과 함께 좋아하는 옷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옷을 입기 싫어지거나 작아져서 못 입을 땐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았다.

은성이는 자신보다 작은 친구나 동생한테 이 옷 입을래? 물어본 후에 물려 주고 서아는 아름다운 가게나 당근마켓에 줄 수도 있고 아름다운 가게에는 옷들뿐만 아니라 장난감도 있었다고 했다.

"선생님 집에 전에 입던 옷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입고 있어. 하지만 버리기에는 좀 아깝더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옷을 세탁소에 맡겨서 다르게 고쳐주라고 하면 돼요"

은성이는 엄마가 옷을 샀을 때 길이가 맞지 않으면 세탁소에서 줄이는 걸 봤고 옷 가게 가면 옷이 많고 큰 거 주라면 큰 거 주고 작은 거 주라고 하면 작은 옷을 준다고 했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나 할인 판매 기간이면 옷을 쌓아 놓고 파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다.

"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옷을 많이 쌓아 놓고 '옷이 싸요. 사러 오세요.' 하고 원하는 색, 원하는 모양, 원하는 크기를 척척 내어 주지? 그런데 그 옷 중에 아무도 안 사는 옷도 많대. 그러면 그 옷들은 어떻게 될까? 버려야 할까?"

"저는 동생이 없어서 안 입는 옷을 아파트 밑에 있는 초록색 통에 넣는데, 그 통에 넣으면 될 것 같아요 "



"여기 초록색 통이 연우가 말한 안 입는 옷을 넣는 의류 수거함이야. 다른 친구들도 본 적이 있니? 이곳에 옷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아이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옷을 가져가서 입을 거라고 했다.

과연 우리가 의류 수거함에 넣은 옷들은 옷이 필요한 사람에게 잘 전달되어 사용될 수 있을까?




(출처: 유튜브 우리가 헌옷수거함에 버린 옷들이 향하는 곳. 크립 KLAB)

영상을 함께 보던 아이들은 많은 옷이 아무 데나 버려져 산을 만들고 물에 떠다닌다는 영상을 보며 모두 놀라워했다.

옷이 산처럼 쌓이고 물속에도 있고 풀을 먹어야 할 소가 옷을 씹어 먹는 모습을 보며

"아 난 여기서 안 살고 싶어. 소가 배가 아플 것 같아"

"여기 옷들이 찢어지고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물을 더럽히고 그 물을 사람들이 먹는대."

영상 속의 사람들은 더러운 물이란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걸 보며 옷을 적게 사고 깨끗이 입어야 한다고 했다. 옷으로 만들어진 쓰레기 산을 보고 놀란 아이들은 집에 가서 의료수거함에 옷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부모님께 말해주고 싶다고 했다.

가정으로 가정통신문(옷이 플라스틱! 패스트 패션이 뭐야?-지구를 살리는 아이들의 생태환경 이야기 p171)을 보내 부모님과 버린 옷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했다.

며칠 전 옷장 속에서 아들이 어릴 때 입었던 옷들을 발견했다. 몇 번 입지 않아 새것처럼 깨끗한 옷들. 아직 멀쩡하지만, 누군가에게 주면 기분 나빠하진 않을까? 그래 의류 수거함에 넣으면 필요한 사람이 가져다 입겠지. 남에게 좋은 일은 해야지 생각하며 가보니 의류 수거함은 옷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지나가다 보면 의류 수거함은 항상 옷으로 넘쳐난다.

'누군가 다시 입겠지' 생각하며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버렸던 옷들이 **우리의 지구를 덮어버리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소비하고 버려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제는 입지 않는 옷을 의류 수거함에 함부로 넣지는 못할 것 같다.

옷의 변신, 요건 몰랐지?

옷이 어떻게 버려지는지 본 아이들은 옷을 어떻게 활용할 수는 없을까 고민하였다.







(출처: 유튜브 낡은 옷의 믿을 수 없는 변신! 놀라운 업사이클링 아이디어 17가지, 더팁)

버려지는 물건을 우리가 쓸 수 있는 물건으로 만들어 내는 것을 새활용이라 하고 옷도 머리띠나 액자, 가방 등 다른 소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더러워진 옷이나 신발을 깨끗하게 할 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요셉의 작고 낡은 오버코트가…?. 심스 태백. 배들북〉

아저씨에게는 누덕 천으로 기운 오버코트가 한 벌 있어요. 너무 오래 즐겨 입어 구멍이 뚫린 이 옷으로 아저씨는 재킷을, 재킷이 닳자, 조끼를 만들어 입었어요. 시간이 흘러 조끼는 목도리로, 목도리는 넥타이, 손수건으로 변하고 나중에는 자그마한 단추가 되었지요. 깁고 자르고 만들기를 계속해서 요셉의 사랑스러운 오버코트는 요셉의 시간이 담긴 멋진 단추가 되었어요. 아끼는 단추를 잃어버린 아저씨는 오버코트가 단추가 된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림책을 함께 보면서 아이들은 요셉 아저씨가 오버코트를 버리지 않고 재킷, 조끼, 목도리, 단추로 만들어 오랫동안 사용하는 모습을 보며 신기해했다.

요셉 아저씨는 코트가 아깝고 소중해서 버릴 수 없고 장갑도 액자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너희가 요셉 아저씨라면 오버코트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도 만들어 보자"


공을 만들어요.


목도리와 치마



고양이의 이불


드레스



서커스 모자

오버코트 그림을 활용하여 아이들 나름의 재활용법을 찾아서 표현해 주었다.

요셉 아저씨처럼 **아껴 쓴 경험이 있을까?**

선생님은 종이컵 대신에 꼭 텀블러를 가지고 다닌다고 하니 종이 타월을 아끼기 위해 손을 털고 가정에서는 전기를 아끼기 위해 에어컨도 적게 켜고 불을 잘 끈다고 했다.

가정과 유치원에서 어떻게 절약하고 있는지 이야기하며 서로 칭찬해 주었다.

요셉 아저씨처럼 우리도 그림책을 만들어 볼까?

그림책에서 요셉 아저씨가 단추를 잃어버리자, 자신의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든 장면을 보고 우리도 함께 모여 그림책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조각 종이에 각자가 그린 그림을 모아 이야기를 만들어 보았다. 연우가 그린 공주님을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전개하였다.



교사: 바이러스 로봇이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 왜 바이러스 로봇이 나왔을까?

정민: 쓰레기를 버리니까 쓰레기 괴물이 커져서 그 속에서 나왔어요.

소윤: 쓰레기는 버리면 안 돼요. 나쁜 벌레가 나와요. 뿔이 달린 로봇이 바이러스 로봇을 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그린 그림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볼까?



나보다 네게 더 잘 어울려



그림책을 함께 읽기 위해 겉표지를 쭉 펼치다가 가격이 적힌 하얀 스티커가 보이자

"저 하얀 스티커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읽던 책을 필요가 없을 때 버리지 않고 파는 책이 중고 책 이란 걸 알려주었다.

"이 안을 봐요. 깨끗하고 좋죠? 이 책 다 읽었으니까 인제 그만 볼 거야 하고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생각해 봐"

"우리가 옷도 다른 사람 준 것처럼 책도 다른 물건도 필요한 사람한테 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버릴 수도 있지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줄 수도 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나눠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았다.



〈내 가발 어디 갔지? 마리 미르겐. 책빛. 2023〉

소중한 것을 나누는 기쁨과 성장 이야기

가발이 바람에 날아가 버린 아저씨는 노란색 물체만 보면 자기 가발인 줄 알고 달려갔지만 쉽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다 결국 찾은 그의 노란색 가발, 그러나 그렇게 찾아 헤매던 가발을 두고 자리를 떠요. 소중한 가발은 작은 새의 포근한 둥지가 되어있었어요. 아저씨는 알을 깨고 나온 아기새와 눈을 맞추었어요. '나보다 네게 더 잘 어울려,'

그림책을 함께 본 후 아저씨가 가발을 찾았지만 왜 아기새에게 주었는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기 새의 둥지로 써야 하니까 집이 더 중요하잖아요. 아저씨가 가발을 주니까 새는 기분이 좋고 고마웠어요."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아서 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자신도 필요한 소중한 물건을 나누어 주니까 더 고마웠을 거야. 우리도 소중한 물건을 나눌 수 있을까?"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맛있는 과자가 있으면 혼자 안 먹고 동생이랑 나눠 먹고 교실에서 친구가 자석 블록이 필요하다고 해서 같이 쓰고 자동차가 필요하다면 자신의 장난감도 양보한다고 했다.

가정과 유치원에서 나눔 경험이 있던 아이들이 장난감도 서로 바꿔 놀면 어떠냐고 의견을 내주었다. **장난감은 흔히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데 재활용도 할 수 없게 다양한 재료가 섞여 있어 제대로 분리배출도 안 된다고 한다.**

"친구랑 바꿔서 놀려면 우린 어떤 장난감을 가져와야 할까?"

집에 있는 커다란 장난감을 가져온다고 해서 너무 무겁고 가져가기 힘들어서 큰 것보다 가방에 넣을 수 있는 장난감을 가져오고 카드보다 인형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비싼 장난감은 아니어도 자신이 아끼는 장난감을 가져오기로 했다.
다음날 함께 모여 자신이 가져온 장난감을 소개하고 사용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나도 한번 해도 돼? 내 장난감이랑 바꿔서 놀자."



서로의 장난감을 소중하게 다루며 신나게 노는 아이들의 눈이 빛나고 활기가 넘쳤다.

부모님과 통화를 하던 중 **장난감을 바꿔서 노는 활동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환경을 생각하는 의미도 있지만 소중한 것을 나눠보는 경험이 돼서 좋았다**고 했다. 유치원에 가지고 놀지 않은 장난감을 가져가라고 했더니 자신의 소중한 장난감을 가져가야 친구도 소중한 장난감을 가져와 바꿀 수 있다고 했다며 참 기특했다고 전해주었다.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수재민을 돕거나 나눔 행사 중 옷 모으기를 하면 입을 수 있는 옷보다 곰팡이 나고 오래되어 못 입는 옷을 통째 보내는 사례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분명 남을 위한 마음으로 보냈겠다고 생각하지만 **나눔을 할 때는 '못 쓰고 안 쓰니까' 하는 맘보다 '나에겐 소중한 물건이지만 나보다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필요하다.**

풍족하게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으로 옷이나 장난감을 많이 사주고, 아이가 싫증을 내거나, 조금만 고장이 나면 바로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가정에서 썼던 물건들이 새로운 주인을 찾아갈 수 있는 당근마켓이나 각종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다행이지만 아파트 한편에 있는 폐가구나 전기제품을 보면 한숨이 나온다.

'이게 다 쓰레기가 되어 어딘가에 쌓여 있겠구나.'

가정과 교실에서부터 아껴 쓰고 나눌 수 있는 경험을 지속해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야 우리 동네 환경 지킴이

쓰레기는 왜 주워요?

우리 동네 '쓰담 활동'을 하게 되었다. 사실 아이들은 유치원을 올 때는 통학차를 타거나 부모님의 차로 오는 경우가 많아 유치원 주변을 돌아보는 기회가 없다. 놀이터나 공원으로 체험활동을 가면 쓰레기 줍기 활동하지만 정작 우리 유치원 주변을 돌아본 적은 없었다.

쓰담 활동을 나가기 전에 쓰레기를 줍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쓰레기가 땅에서 없어지려면 300년은 기다려야 된대요."

"동물들이 쓰레기를 먹으면 죽으니까요. 전에 소들이 옷을 먹는 거 봤잖아요."

"나무가 오염돼서 썩으면 나무가 죽고 나무가 없으면 우리는 숨을 못 쉬어요."

"쓰레기는 땅에서 썩으면 냄새도 고약할 것 같아요. 쓰레기랑 합쳐져서 나쁜 공기가 우리 코로 들어올 것 같아요."

"더러운 걸 마구마구 버리면 지구가 열이 나고 뜨거워져요."

아이들은 지구가 무엇 때문에 오염되는지 알고 있었고 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

쓰레기를 버린 사람은 누구일까? 자신들도 버렸고 지나가던 사람들, 할머니가 이쑤시개를 쓰고 땅에 버리고 아저씨들이 담배를 피우고 바닥에 버리는 걸 봤다고 했다.

이야기 끝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고 알려주기로 했다.

큰 소리로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라고 외치자는 아이들도 있고 그럼 목도 아프고 시끄러우니까 종이에 써서 보여주자고 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우리 반은 유치원에서 쓰지 않는 커다란 현수막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럼 어떤 말을 쓰면 좋을까? 의견을 나누고 결정하기로 했다.

- ☑ 안돼! 지구가 아파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 ☑ 지구가 뜨거워요.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 ☑ 지구의 오염. 우리가 막자
- ☑ 지구야 아프지 마. 우리가 지켜줄게.

현수막을 잘라서 한편은 그림을 그려 전시하고 다른 쪽은 피켓을 만들었다.





"우리는 글자를 잘 모르니까 선생님이 써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래요."

아이들은 깨끗한 지구와 쓰레기통, 쓰레기를 줍는 아이를 그렸다. 도윤이는 쓰레기는 바로 버리지 말고 분리수거 통에 넣으면 된다고 하며 그 위에 분리배출 표시도 멋지게 그렸다.

누가 쓰레기를 버린 거야?

아이들은 들떠 있었다. 쓰레기를 주우러 간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나들이를 가는 듯, 표정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찻길이 있어서 학부모 동아리(아이사랑 지구사랑) 어머니들께서 함께해 주셨다. 유치원을 벗어나 길을 걷다 보니 곳곳에 쓰레기가 많았다. 아이들의 손은 분주하게 움직였고, 아이들은 자신이 주운 쓰레기마다 한마디씩 거들었다.

"선생님 이거 봐요. 쓰레기 진짜 많아요. 콜라 캔도 있어요"

"여긴 커다란 비닐도 있어. 냄새가 엄청 이상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쓰레기를 열심히 주워 오는 아이들의 손길

"담배꽁초가 있어요."

자세히 보니 길옆에는 담배꽁초가 가득하고 빗물받이 속에도 잔뜩 쌓여 있었다.

큰길로 내려오니 옆쪽으로 담배꽁초가 눈에 자꾸 띄었고 식당 옆에는 유난히 더 많았다.

대로변 주차장 옆도 예외는 아니었다.

"왜 이렇게 담배꽁초가 많아요?"

아이들은 궁금해했다. 내가 대답을 생각하기도 전에, 규원이가 옆에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말했다.

"차에서 담배 피우고 밖에다가 버리는 거 봤어요."

아이들은 다 보고 있었다. 아이들에게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거리낌 없이 차 밖으로 휙~ 던져진 담배꽁초. 그 불쾌한 어른들의 조각을 아이들이 줍고 있었다.

너무 창피하고 미안한 마음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함께 도와주던 동아리 어머니들도 **어른들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며 아이들 보기에 부끄럽다고 했다.





교실에 들어와 **모은 쓰레기를 보니 역시 담배꽁초가 제일 많았다**. 냄새가 지독했다.


빗물받이에 모인 담배꽁초


바닷가에 떠다니는 쓰레기


모래사장에 쌓인 담배꽁초


담배꽁초를 주고받는 엄마 새와 아기 새

"땅에 있던 담배꽁초는 어떻게 될까?"

비가 오면 담배꽁초는 하수구로 들어가 둥둥 떠서 바다로 가고 물고기는 먹이인 줄 알고 먹고 그 물고기를 사람이 먹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아이들은 엄마 새가 담배꽁초가 먹이인 줄 알고 새끼 새에게 주는 모습을 보며 너무 슬퍼했고 뱃속에 쓰레기가 가득한 고래도 봤다고 하면서 너무 속상하다고 했다.

담배꽁초가 심각하게 땅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 쓰레기를 줍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쓰레기가 많아서 줍는 게 힘들고 냄새가 났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인 이가 말했다.

"바닥이 깨끗해지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나도 또 줍고 싶어요. 우리 다음에 또 해요."

우리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가서 쓰레기를 줍기로 했다.



점심 식사 후 놀이터에 나갔다. 윤선이가 작은 그릇을 들고 왔다 갔다가 하며 땅에서 뭔가를 줍고 있었다. 뭐 하고 있냐고 물으니

"놀이터에도 쓰레기가 있잖아요. 유치원도 깨끗하게 해줄 거예요."

우리 놀이터에 쓰레기가 있다고? 그릇 안에는 작은 고무줄, 어디선가 날아 온 듯한 작은 비닐들이 있었다.

"우리 유치원이 더 깨끗해졌네. 고마워."

연우와 정민이도 윤선이를 도와 함께 쓰레기를 주웠다.

아이들이 버리지 않은 쓰레기를 줍자고 데리고 나가 너무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깨끗해진 거리를 보며 기분이 좋아졌다고 또 가서 줍고 싶다는 아이들을 보며, 아이들한테 배운다는 말이 생각났다.



우리가 주운 쓰레기, 뭐가 있을까?

우리 동네를 돌며 주웠던 쓰레기는 무엇일까? 쓰레기 봉지에 있던 쓰레기를 바닥에 부어서 어떤 쓰레기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쓰레기 봉지를 여는 순간 코를 찌르는 냄새.

냄새가 너무 난다며 서로 코를 잡는 아이들을 보며, 혹시나 해서 바람이 잘 통하는 놀이터 한편에서 열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주운 쓰레기는 어떤 게 있을까?

작은 명함 종이, 생수통, 커다란 비닐, 과자봉지 등 종류가 다양했다. 그 중의 가장 많은 건 담배꽁초였다.

"이거 내가 좋아하는 과자인데. 난 꼭 쓰레기통에 버려요."

연우는 커다란 비닐은 흙 속에서 파 왔다며 싹이 피어나고 싶어도 비닐 때문에 자랄 수도 없고 흙이 썩고 있다고 했다.

"담배꽁초가 빗물받이에 걸려있으면 어떻게 될까?"

서준이는 뉴스에서 봤다며 비가 많이 올 때 물이 차서 차도 못 다니고 담배꽁초가 바다로 가면 물고기도 죽고 물도 더러워진다고 했다. 우리는 **쓰레기를 그냥 버리지 않고 분리배출**을 해보기로 했다.

생수병은 하얀색 바구니에 넣고 재활용이 가능한 투명한 플라스틱 음료수병도 모았다.

음료수 뚜껑은 플라스틱과 함께 넣고 콜라 캔과 음료수 캔은 파란 바구니에 넣었다.

"선생님 여기 빨대도 있어요. 빨대가 꽂힌 거북이도 봤는데."

빨대 없이 그냥 먹어도 되니까 빨대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선이는 집에서 스테인리스 빨대를 쓰는데 잘 씻고 소독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었다. 쓰레기 중에는 햇반 그릇도 보였다.

"이거 플라스틱이죠?"

"아니 다른 물질과 플라스틱을 섞어서 만든 거라서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 대."

연우는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고 분리배출 했던 그릇이 일반쓰레기라고 하자 의아해하다가 버리지 말고 깨끗이 씻어서 모래 놀이할 때 소꿉놀이 그릇으로 쓰면 좋겠다며 유치원 모래 놀이터로 가져가고 싶다고 했다.

"우리 다음에도 또 해요."

"선생님, 난 집에서도 쓰레기 주울 거예요"



"우리 아빠한테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해야지."

가정통신문(담배꽁초 버리는 방법! 배운 적이 있었나요?-지구를 살리는 아이들의 생태환경 이야기 p.182)을 배부하여 **어른들이 했던 무분별한 행동인 담배꽁초 버리기가 환경을 얼마나 더럽히고 있는지 알리고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하였다.

은설이 어머니는 가정통신문을 읽고 몰랐던 부분이 많았고 배울 수 있었다면서 남편과 함께 읽었고 담배꽁초는 꼭 쓰레기통에 버리기로 약속했다고 전해주셨다.

집에서도 **부모님과 함께 줍깅 활동을** 했다면서 사진을 보내 주셨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줍겠다고 다짐하는 아이들을 보니 교실에서 영상을 보거나 교구로 하는 환경 수업보다 실제로 가서 주워보고 분리배출 해보는 경험이 훨씬 더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멋진 영상 수업보다, 직접 손으로 주워보고, 냄새를 느껴보며 많은 것들을 배운다. 자신이 직접 느낀 후에는, 어른들보다 더 합리적이고, 더 열성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개하고, 실천한다.

이런 아이들의 모습이 그저 성장기의 한 과정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함께 쓰레기를 줍던 우리 반 친구들은 쓰레기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주울 것이고 환경을 한 번 더 생각하며 실천해 나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섯 번째 이야기

무지개 선생님과
꽃잎반 아이들의

시나브로 커가는 생생

(생태환경을 위한 생활실천) 이야기

교직 생활 2년차였던 1999년에는 종말론과 밀레니엄버그로 떠들썩했었다. 종말론과 밀레니엄버그는 해프닝으로 끝나버렸고 그때 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이상 기후로 인한 폭우, 폭염, 한파 등으로 또 한 번 지구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종말을 20여년전 종말처럼 그냥 해프닝으로 치부해도 될까?

이제 이상 기후로 인한 수많은 재해들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거나, 나 아닌 다른 누군가 해결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기에는 우리의 지구가 기다려 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올 한해 종이와 테이프로 만들기를 좋아하고 바깥에서 쉼 없이 뛰어놀기를 좋아하는 천방지축 5세 16명과 함께 아름다운 지구를 생각하며, 하루하루 조금씩 우리의 생태발자국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는 작은 이야기들을 이 책에 적어보았다.



앎이 삶이 되는 순간을 기대하며

우유갑아, 넌 다시 뭐로 태어날래?
어서 와~ 종이 만들기는 처음이지?!
학부모님과 함께
칫솔 분해 시간은 100년 이상!!
물티슈의 불편한 진실

쓰레기 줍기에 의미를 주자

모두가 함께 하면 좋겠어요

함께 물들다

쓰고 또 쓰고 REUSE

교사 자신을 돌아보다

무지개 선생님과 꽃잎반 아이들의 시나브로 커가는 생생 이야기





앎이 삶이 되는 순간을 기대하며

우리는 환경오염, 환경보호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들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아이들의 하루 생활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미술 영역에서 쓰고 버려지는 각종 종이들, 풀보다 편해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테이프, 아이들이 마시고 상자에 넣어둔 우유갑, 간식 시간에 먹고 버려지는 플라스틱 음료병, 손쉽게 사용하는 물티슈와 갑티슈, 플라스틱 칫솔, 손을 씻은 후 사용하는 종이 타월, 교육활동 자료가 담겨져 있던 비닐, 지퍼백 등 유치원 환경은 일회용품, 플라스틱, 각종 쓰레기로 넘쳐나고 있었다.

교사의 고민과 의문

- 우유 상자에 넣어둔 우유갑은 과연 재활용이 될까?
- 종이를 아껴 쓰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종이나 테이프 사용에 제한을 주면 놀이를 방해하는 것은 아닐까?
- 교실에서 분리배출은 어떻게 할까?
- 칫솔은 재활용이 될까?
- 물티슈 대신 걸레를 사용하면 불편하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과 의문들 속에서 '내가 아이들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생각하며 생태환경을 위한 실천행동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 차근차근 실천하고 있다.

우유갑아, 넌 다시 뭐로 태어날래?

다 먹은 우유갑은 상자에 담아두면 우유 회사에서 수거해간다. 그런데 수거해간 우유갑이 제대로 재활용되고 있는지 걱정스러웠다. 우리 유치원에 우유를 공급하는 회사에 문의했더니 우유 공장에서 내려오는 물류차에 다 실어 보내고 그 뒤에 처리되는 과정을 자기들은 알 수 없다고 했다.



아이들과 함께 상자에 담아둔 우유갑들은 어디로 갈지 이야기 나누었다.

"우리가 먹고 상자에 담아둔 우유갑은 어디로 갈까?"

"쓰레기장으로 갈 것 같아요."

"우유 회사로 갈 것 같아요."

"선생님이 우유 회사에 전화해 보니 우유 공장에서 다시 가져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 아마도 우유갑이 재생휴지가 될 수 있으니 재생휴지 만드는 공장으로 갈 것 같아."

"우유갑이 휴지가 돼요?"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휴지로 다시 만들어지지. 진짜 그런지 우리 한번 알아볼까?"

아이들과 인터넷에서 우유갑이 재생휴지가 되는 과정을 알아보고 제대로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배워 실천하기로 했다.

우유를 먹으면 깨끗이 씻어 말리고 다음 날 가위로 잘라 펼쳐서 차곡차곡 모았다.

처음에는 가위로 자르는 것이 힘들다며 볼멘소리를 하곤 했는데 하다 보니 요령들이 생겼는지 지금은 금새 잘라 우유갑 모으는 통에 넣는다.

어느 날 우유갑을 자르던 수지가 옆에 있는 안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유를 들어보니 수지가 우유갑을 자르다가 우유갑이 반으로 잘라질 것 같아 테이프를 붙였는데 옆에서 보던 안나가,

"그거 테이프 붙이면 재활용 안되잖아!"

라고 이야기해서 수지가 당황하여 얼른 테이프를 뗐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특하던지. 이것이 **'앎이 삶이 되는 순간'**이지 않을까.....

3월부터 6월 중순까지 모은 우유갑은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가서 휴지로 바꿔왔다. 바꿔온 휴지는 아이들의 의견으로 다른 반들과 나눠 썼고 지금도 아이들은 우유를 먹으면 당연히 씻어 말리고 잘라서 펼친 후 모으고 있다.









우유갑 재활용

우유갑 안쪽 종이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최고급 천연펄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높다. 재활용된 우유갑은 화장지나 키친타월 등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 1톤의 우유갑을 재활용하면 30년생 나무 20그루를 심어 숲을 조성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한다.

(*출처: 제민일보)

한 가지 더 우유갑은 일반 종이와 함께 분리배출 하면 재활용이 어렵다고 하니 우유갑은 따로 분리배출 해야 한다.

어서 와~ 종이 만들기는 처음이지?!

다시 쓸 수 있지만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갖가지 종이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종이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은 없을까 고민하던 중에 '재생종이를 한번 만들어 볼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이들과 우유갑을 자르면서 우리가 버리는 종이도 다시 재활용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더니,

"그럼 종이로 다시 만드는 거예요?"

"종이로 다시 만들 수 있대."

"어떻게 다시 만들어요?"

"그럼 우선 나무가 종이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보자."

"좋아요!"

다음 날 나무가 종이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찾아 함께 보며 이야기 나누었다.



진짜 나무로 종이를 만드네.
종이 만드는 거 복잡하다.
물도 많이 들어간다.
안 좋은 것도(화학물질) 들어가나 봐.

동영상을 보는 내내 아이들의 눈빛은 놀람으로 반짝거렸다.

나무 한 그루로 A4 만장을 만들 수 있고 **A4 한 장을 만들 때 물은 10리터가 들어간다**고 했더니,

"선생님. 10리터가 어느 정도예요?"

"(책상에 있는 500㎖ 생수병을 보여주며) 이 물병이 20개 정도 있어야 해."

"20개요?"

"우와~ 물이 엄청 들어가네."

"맞아. 종이 만들 때 나무만 필요한 게 아니라 물도 엄청 많이 필요해."

이야기 나누기 후에 쓰레기통에 버려진 쓰레기를 종이, 플라스틱, 버릴 것으로 분류해 보았다.



이건 쓸 수 있는 색종이인데 누가 버렸어?
어, 이건 ○○이가 그린 종이다.
종이 쓰레기가 많네.
이건 플라스틱인가?

아이들은 분류하면서 우리가 다시 쓸 수 있는 것도 버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분리수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분류가 끝난 뒤 종이, 플라스틱은 따로 모으자는 의견이 나왔고 그 뒤로 폐지와 플라스틱을 분리해서 모으게 되었다.

어느 날 병찬이가 "선생님! 우리가 모은 종이로 뭐 할 거예요?"라는 물음에 우리가 모아서 버린 종이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버려진 종이들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재생종이로 만들어지는 인터넷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모은 폐지로 재생종이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먼저 우리 반에서 버려지는 종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류해 보았고 그중에서 하루 동안 제일 많이 버려지는 A4용지와 색종이로 재생종이를 만들기로 하였다.

30년 된 원목 한 그루, 몇 장의 종이가 나올까?

30년생 원목 한 그루에서 1만장의 A4(A4 용지 네 박스)가 생산된다. 1장의 A4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10ℓ의 물이 소비되며, 2.88g의 탄소가 배출된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종이의 불편한 진실이다.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1년 동안 소비하는 종이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은 대서양을 비행기로 왕복할 때 발생하는 탄소량과 같다고 하니, 종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지구온난화에 일조하고 있는 셈이다.

(*출처: 슬로워크 블로그)

재생종이 만들기 사전 활동으로 종이를 찢고 물에 불린 후 종이죽으로 만들었다.



모아둔 종이를 찢으며 처음에는 신나서 찢더니 조금 시간이 흐르니, "선생님. 언제까지 찢어요?"라는 말과 함께 대충대충 찢기 시작했다. 하지만 끈기 있는 아이들의 도움으로 잘 마무리되었다.

잘게 찢은 종이를 따뜻한 물을 부어 불린 후 불린 종이를 더 잘게 찢었다.



"죽 같아졌어요.", "부드러워요", "근데 진짜 종이가 돼요?"라고 이야기하며 공, 눈사람 등을 만들어 놀면서 종이죽을 완성했다.

종이죽을 만든 후 아이들과 재생종이 만들기를 했다.

재생종이 만들기 재료를 알아보던 중,



기현이가 물어본 한 마디 "그 막대기도 재활용한 거예요?"에 머리가 띵했다. 기현이의 이 한마디로 나는 재사용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고 일회용품, 쓰레기로 버려질 수 있는 물건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아이들은 교사가 직접 찍은 재생종이 만드는 과정 동영상을 본 후 진짜 종이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신중하게 재생종이를 만들었다.

완성된 재생종이를 보며 여기저기서 "와~"하는 탄성이 들렸다.

다 만들고 난 뒤 소감을 물어보니 만드는 게 어려웠지만 재미있었고 종이를 아껴 쓰겠다고 했다.

재생종이를 만들어 보았다고 아이들이 바로 종이를 아껴 쓰고 구겨진 종이를 다시 펴서 사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재생종이를 만들어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종이가 종이로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앎으로 종이를 버리려 할 때 조금은 '멈칫'하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얻음이라고 생각한다.**

며칠 뒤 재생종이가 어느 정도 말라서 마지막으로 다림질을 해 주었더니 두껍지만 쓸만한 종이가 되었다. 아이들은 재생종이에 나무와 지구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기도 하고 환경보호 책갈피를 만들어 동생반에 가서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아이들은 무척 뿌듯해했고 나는 그런 아이들이 기특했다.






가끔씩 아이들은 재생종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만들고 싶다고 한다. 교사에게도 뜻깊은 수업이라 또 하고 싶지만 준비할 것들이 많아 쉽게는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안나가 우유갑으로도 종이를 만들 수 있다는 나의 이야기를 또 듣고 한번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고 학부모와 함께 하게 되었다.

학부모와 함께



우유갑으로 재생종이를 만드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우유갑을 물에 불리고 우유갑 겉을 둘러싸고 있는 코팅비닐을 일일이 벗겨내야 했다. 아이들과 함께 했지만 쉽게 벗겨지지 않아 애를 먹었다. 어렵게 벗겨낸 우유갑 종이를 잘라서 물에 불리고 끓이고 블렌더로 갈고 또 끓이고 가는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하니 새하얀 종이죽이 되었다.



학부모 참관수업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유치원에서 해왔던 지구를 위한 실천 행동을 담은 동영상을 보며 이야기 나누고 재생종이를 만들어 보았다. 우유갑 재생종이의 좋은 점은 하얗다는 것이다. 그래서 식용색소를 이용하여 다양한 색의 종이를 만들어 보게 했더니 아이들은 더 재미있게 재생종이 만들기에 몰입하였다.

수업 마지막 놀이 공유시간에 학부모님들의 수업에 대한 소감을 들어보았다.

"집에서도 우유를 먹으면 씻어서 말리고 일회용품 등이 있으면 모아 달라고 했는데 그냥 그 말을 지나쳐 버려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료수를 먹고 버리려고 하면 씻어서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아이 입에서 **재활용, 새활용, 다시쓰기** 말이 나왔을 때 유치원에서 참 의미있는 활동들을 하고 있구나 생각했어요."

"앞으로 아이와 함께 제대로 분리수거하고 일회용품을 챙겨줘야겠어요."

학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생각이 변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다.

우리 아이들의 실천 행동들이 올 한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른이 되어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금 우리 어른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한다.

새활용=업사이클링 Upcycling

버려지는 자원에 디자인을 더하거나 활용방법을 바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업사이클링(Upcycling)의 우리말이다. 물건을 처음 만들 때부터 환경과 자연을 생각하며 쓸모가 없어진 후까지 고려하는 것, 물건을 가치 있게 오래 사용하도록 의미를 담아서 만드는 것까지 – 새활용은 환경을 지키고 자원순환을 실천할 수 있는 자원순환의 새로운 방법이다.

(*출처: 서울새활용플라자)

칫솔 분해 시간은 100년 이상!!

3월 한 달 동안 사용한 칫솔을 바꿀 시기가 왔다. 그 칫솔을 보면서 칫솔은 재활용이 될지 궁금해졌다. 아이들에게 물어보니 플라스틱이니까 재활용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아이들과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칫솔은 순수하게 플라스틱으로만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칫솔모, 고무손잡이 등 다른 재질들이 혼합되어 있어 재활용이 불가능해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사: 칫솔은 재활용이 어렵대. 그럼 지구를 위해 어떤 칫솔을 사용하면 좋을까?

(한동안 정적이 흐르고 아이들은 눈만 깜박였다.)

플라스틱이 잘 썩지 않으니까 잘 썩는 것으로 만든 것을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다훈: **아! 그럼 나무로 만든 칫솔을 쓰면 되겠네요.**

보검: 인터넷에서 나무로 만든 칫솔 찾아봐요.

그래서 플라스틱 대신 생분해되는 대나무 칫솔을 사용하기로 했다. 학급운영비로 바로 구입해서 4월부터 지금까지 대나무 칫솔을 사용하고 있다.



*** 숫자로 본 생활폐기물 분해기간**



(*출처: 지학사아르볼〈나 좀 살려줘! 환경과 쓰레기〉)

우리가 쓰는 형태의 칫솔이 생산된 이후로 단 한 개의 칫솔도 분해되지 않았다.

※ 대나무 칫솔은 플라스틱 칫솔보다는 빨리 닳고, 잘못 보관하면 곰팡이가 쉽게 생겨 양치 후 깨끗이 씻어 온도를 조금 높게 설정한 칫솔살균기에 보관해야 한다.

물티슈의 불편한 진실



아이들이 우유를 먹다 보면 흘리는 경우가 종종 있고, 물감놀이를 하다 보면 물감을 흘리거나 손에 묻기도 한다.

그럴 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갑티슈나 물티슈로 손이 간다. 나 또한 물티슈를 애용하였다.

'**과연 물티슈는 우리가 쓰는 일반 휴지처럼 나무로 만들어졌을까? 그렇지 않다면 버려지는 물티슈는 어떻게 될까**'하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당연히 천연펄프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물티슈는 버려지면 종이처럼 썩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썩지 않는 미세플라스틱 덩어리라고 한다. 물티슈는 일회용 빨대보다 플라스틱 성분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고 여러 가지 중금속 성분도 들어있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동안 내가 버린 물티슈는 묻히거나 태워졌을 텐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뿐만 아니라 동물들, 식물들에게도 돌아갔을 것이다. 인간의 편리함이 결국 지구를 위협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지구의 모든 생명체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티슈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을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며 물티슈 대신 걸레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고 우리는 걸레를 사용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물티슈에 손이 가던 아이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걸레를 쓰고 자기가 쓴 걸레는 빨아서 말려둔다.**

아직도 가끔은 티슈에 손이 가는 아이들이 있지만 친구들이나 나의 제지로 걸레를 사용한다. 그때마다 생각한다. 너무 야박하게 잔소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쓰레기 줍기에 의미를 주자

우리 유치원 앞에는 아이들이 딱 놀기 좋은 동*공원이 있다. 우리 유치원 아이들뿐만 아니라 동네 어린이집 아이들, 초등학생들이 신나게 놀다 가곤 한다.

3월 어느 날 동*공원에 갔는데 땅에 떨어진 과자봉지들이 여기저기 보였다. 아이들과 쓰레기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누었더니 '우리가 동*공원을 사용하니 버려진 쓰레기들을 줍자'는 의견이 나와 실천하기로 했다.

쓰레기 줍기용 집게를 구입한 후 동*공원 안팎을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줍는데 생각보다 많이 줍게 되었다. 쓰레기를 다 주운 후 아이들에게 쓰레기를 주워보니 어떤지 물어보았더니 "오래된 쓰레기가 많아요.", "담배도 많았어요.", "깨끗해져서 좋아요.", "또 줍고 싶어요." 등 자신들이 동*공원을 깨끗하게 했다는데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았다.

그 후로 동*공원에 가면 놀기 전에 쓰레기를 줍고 놀기로 우리만의 약속을 정했다. 그리고 지금도 실천 중이다.





아이들은 쓰레기를 주우며 무슨 생각을 할까?

아마도 선생님이 주우라고 해서, 아니면 빨리 줍고 놀이터에서 놀아야지 하며 줍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보았다.

"우리 친구들이 동*공원에서 쓰레기를 잘 줍고 있는데 쓰레기를 주울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요."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물어본 질문이 무슨 뜻인지 모르거나 쓰레기 주울 때 무슨 생각을 했더라 하며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때 민수가 손을 번쩍 들었다.

"지구를 구하겠다는 생각요!"

뒤이어 여러 명이 지구를 구해주고 싶어서,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려고 등의 대답이 계속되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무심코 버린 운을 줍는 것'이라 생각하며 쓰레기를 줍는 오타니 야구선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선생님은 쓰레기를 주울 때 행복을 줍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더니,

미소가 "저는 동*공원 청소하는 아저씨를 생각하며 주울래요."라고 이야기했다.

몽골에서 한국에 온 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 한국말이 서툰 수남이는,

"전 선생님의 기쁨을 주울래요."

"수남이의 말을 들으니 벌써 선생님은 기쁜데!"

어느 날 찬우가 급식을 먹고 교실로 가고 있는데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것이 아닌가?

아낌없는 칭찬을 한 후에 왜 주웠는지 물어보았더니.

" 그냥요. 바닥에 떨어져 있잖아요."

쓰레기 줍는 행동에 의미를 주는 것은 아직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가 내 눈에 밟혀서 그냥 줍는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의미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모두가 함께 하면 좋겠어요

9월 어느 날 '환경송'을 부르고 아이들에게 습관적으로 질문을 하나 던졌는데 의도치 않게 의미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교사: 노래에서 지구를 행복하게 하는 일은 뭐라고 했나요?

아이들: 분리수거, 재활용!

기현: 어!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네.

수지: **그런데 안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노아: **안 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되잖아!**

교사: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대세: 그림을 그려서 여기저기 붙여줘요. (전단지 이야기인 듯)

아이들: 카톡으로 보내요.

모르는 사람은 카톡 안되잖아!

동영상 만들면 되지.

어떻게 보내줄 건데?



교사: 동영상을 만들면 유튜브에 올릴 수 있어.

아이들: 그렇게 해 봐요.

교사: 동영상을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우선 대세 말처럼 그림을 그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먼저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로 환경포스터를 그리고 현수막을 만들어 환경캠페인을 해보기로 했다.

환경캠페인 현수막을 만들기 전에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왜 그레타 툰베리가 학교에 가지 않고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있었는지 이야기 나누어 보았다. 조금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우리가 지구에 대해 가지고 있는 걱정을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하고 있고 기후 위기 상황에서 지구를 조금 더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해야 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수업을 준비하였다.



환경포스터





아이들이 그린 포스터를 모아 만든 환경지키미 현수막

활동이 끝난 후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보았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우유갑 모으기, 양치컵쓰기, 분리수거하기, 재사용하기, 쓰레기줍기 등)**을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엄마, 아빠한테도 이야기해 줄래요."

"캠페인 빨리 해요."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수업을 참관한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이 환경 관련 수업을 생활주제로만 진행했다면 아이들이 어려워했을 것 같은데 아이들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친환경적 생활습관을 실천했기 때문에 잘 표현한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셨다.

현수막을 만들고 며칠 후 급식실 앞에서 환경캠페인을 했다.



교실에서 연습했던 거와는 달리 아이들은 많이 쑥스러워했다.

하지만 칭찬해 주시는 원장, 원감선생님, 다른 학교에 보여주고 싶다며 사진을 찍어가는 선생님, 엄지척을 해 주는 초등학교 오빠, 언니들을 보며 아이들은 내심 뿌듯해했고 다시 한번 지구를 위한 실천행동들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수업 전 교사의 고민

환경포스터, 현수막 만들기를 계획하면서 어떤 재료를 이용해야 할까 고민이 되었다.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을 보면 보통 상자나 폐현수막을 이용하였다. 나도 처음에는 상자와 폐현수막으로 해볼까 했지만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실외에 걸어두고 싶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쉽게 포스터 내용을 그릴 수 있도록 포스터틀을 인쇄할 수 있는 방수라벨지와 포스터가 돋보일 수 있는 광목천을 선택하게 되었다. 방수라벨지가 친환경적일까 고민이 되었지만 아이들에게 방수라벨지의 활용을 이야기해 주었더니 "다음에 우유갑 바꾸러 갈 때 옷에 붙여서 가요.", "집에 가져가서 벽에 붙여 놓을 거예요."라는 이야기를 듣자 불편했던 마음이 위안이 되었다. 광목천은 포스터를 떼어낸 후 아이들과 함께 멋지게 변신시켜야겠다.

예전에는 활동자료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하면 돋보이고 아이들이 편하게 사용할까가 우선이였다. 그런데 지금은 새로 사지 않고 주변에 있는 것을 다시 사용할 수 없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무엇이 친환경적일지 고민하면서 활동자료를 찾는다. 이런 나의 모습이 현직연구원을 하면서 바뀐 변화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함께 물들다

3월 중순부터 아이들과 우유갑, 폐지, 플라스틱 모으기를 하면서 방과후과정 선생님과 이 활동을 하는 취지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공유했다.

방과후과정 선생님은 이런 의미있는 활동을 하는 것에 적극 찬성하고 자기도 배울 수 있어 좋다고 하셨다. 또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달라는 말씀에 든든한 후원자를 만난 것 같았다. 방과후과정 선생님은 그 후로 창가에 말려둔 우유갑을 아이들이 등원하면 바로 자를 수 있도록 책상 위에 올려두고 창가에 말려둔 유산균 음료병은 모아주신다. 또한 교육활동자료가 담겨져 있던 비닐봉투와 지퍼백, 과자상자, 갖가지 이면지 등을 모아 아이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신다.

5월 어느 날 생존수영을 가기 위해 아이들 간식을 일회용 비닐팩에 담아 나눠주었는데 생존수영을 다녀온 뒤 방과후과정 선생님이 일회용 비닐팩을 일일이 모아서 다음날 또 간식을 담아 나눠주는 모습을 보고 '난 왜 저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고 반성하게 되었다.

우리 반에서 시작한 우유갑과 유산균 음료병 모으기는 다른 반도 조금씩 동참하게 되었다.

3세반은 우유갑을 잘라 펼치는 것을 어려워해서 씻어서 말려만 주면 우리 반 아이들이 잘라 펼쳐서 우리 반 우유갑과 같이 모으고 있다. 학교 안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는 교실에서 실천하고 있는 친환경적인 생활습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어려움도 서로 나눌 수 있었다.

2학기가 시작되고 2주간 세탁기 사용을 할 수 없었다. 자원봉사자 선생님의 수고로움을 덜어주고자 청소포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4세반 선생님이 바닥을 닦은 청소포를 빨고 계신 것이 아닌가. 버리셔도 되는데 왜 빨고 계시는지 물어보니 빨아서 창틀을 닦으면 깨끗하게 닦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 다시 쓴다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내가 부끄러웠다. 그 이후에 청소포를 쓸 일이 있었는데 사용한 후 빨아서 여러 번 사용하고 버렸다.

자원봉사자 선생님은 간식으로 제공되는 제과점 빵의 빵끈을 모아주신다. 그것 또한 아이들의 훌륭한 놀이자료가 되고 있다.

우리가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고 부지런히 손을 움직이면 우리의 생태발자국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구는 몇 개일까?

생태발자국이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생태계에 얼마나 많은 환경 오염 발자국을 남긴 것인지를 의미한다. 지구가 기본적으로 감당해 낼 수 있는 면적 기준은 1인당 1.8㏊이고 면적이 넓을수록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의미가 된다. '한국 생태발자국 보고서 2016'에서 한국인처럼 산다면 3.3개의 지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4개 이상이 필요하다고 한다. 일상생활에서 내리는 소비 결정이 우리의 생태발자국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다. 나 하나쯤 어때 보다는 함께 하는 작은 실천들로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



쓰고 또 쓰고 REUSE

아이들과 나의 일상생활이 환경을 생각하며 변화하면서 유치원 생활 속에서 버려지는 일회용품이나 생활 쓰레기들을 다시 쓸 수 없을까 고민하며 다시 쓰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우유갑으로 가위, 풀 넣는 통 만들어 사용하기



빵을 담았던 종이상자로 플라스틱 바구니 대신하기



물티슈캡 놀잇감으로 사용하기



사용했던 전지 뒷면, 포장지 다시 쓰기









놀이자료 담겨져 있던 비닐봉투, 지퍼백 다시 쓰기 (작품 보관함, 나뭇잎 방석(베개))

빈요구르트병 놀잇감으로 사용하기



사용했던 종이타월 모아서 살균



종이타월 도화지



닦을 때 쓰는 재사용 종이타월



종이타월로 만들어 놀이하기

이 외에도 휴지심, 테이프심, 빨대, 과자봉지, 각종 플라스틱통, 인스턴트 커피통 등을 다시 쓰거나 놀잇감으로 제공하고 있고 **무엇이든 생기면 다시 쓸 수 없을까 고민하면서 아이들에게 주고 있다.** 그러면 아이들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유용하게 잘 사용한다.

교사가 그냥 버려질 수 있는 물건들을 다시 사용하면서 아이들도 시간이 흐르니 자연스럽게 **"선생님. 이거 다시 써도 돼요?", "이거 재활용되는 거예요?"** 묻곤 한다.

2학기 학부모님 상담 내용 중에,



집에서도 "엄마, 나 이거 다시 쓸 거니까 씻어서 말려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하거나 자기가 직접 씻어 말리기도 한다면서 유치원에서의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고 참 의미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고 **교사인 나의 행동들이, 말들이 아이들에게 스며들고 있는 것** 같아 흐뭇해졌다.

지금은 아이들이 자기 집에서 우유갑을 가지고 와서 우리 우유갑과 함께 모으거나 일회용품, 각종 재활용품을 가지고 와서 놀잇감으로 사용하고 있다.

교사의 고민

플라스틱, 비닐 등을 놀잇감으로 제공하면서 드는 고민이 '내가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놀잇감으로 주면서 재활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였다. 그래서 알아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분리배출 후 재활용되는 비율은 상당히 낮았다. 그리고 분리배출 하고 있지만 분리배출하지 않아도 될 물건들도 많았다. 그렇다면 조금 더 유용하게 여러 번 쓰고 난 뒤에 재활용할 수 있는 상태면 분리배출하고 그렇지 않다면 일반쓰레기에 버려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한다.

재활용(recycling)과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ing)은 한 번 사용한 제품을 다시 자원으로 만들어 새로운 제품의 원료로 이용하는 일이라고 한다. 재사용(reuse)은 내구성이 강한 동일한 제품을 소재의 상태를 변형시키지 않고 여러 번 순환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플라스틱이나 종이 같은 일회용품 대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기, 텀블러, 리필용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엄밀히 따지면 내가 사례로 적어놓은 것은 환경용어로서의 재사용이라고 할 수 없지만 유치원에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일회용품들을 우리 아이들이 여러 번 쓰는 것이 생활화 된다면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실천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는 더 나은 방법으로 재사용을 하리라 믿는다.

교사 자신을 돌아보다

유치원에서 아이들과 조금씩 나름 친환경적인 생활로 바꿔가면서 내 자신의 삶도 들여다보게 되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잔소리처럼 하고 있는 일들을 나는 지키고 있을까?

- 양치컵을 쓰고 있는가?
- 일회용품을 즐겨 쓰지는 않는가?
- 불필요한 이면지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 장바구니를 사용하고 있는가?
- 물티슈 대신 걸레를 사용하고 있는가?
- 분리배출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사실 나는 양치컵을 잘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하지 않는 일을 아이들에게 하라고는 할 수 없어 유치원에서도 집에서도 양치컵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조금 생각이 느슨해지면 손으로 물을 받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알까 싶어 조금 창피했다.

하나의 행동이 습관이 되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오랫동안 길들여진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해야 고쳐지는 것 같다. 그런데 가치관과 습관을 형성하는 유아기에 시작한다면 우리 어른보다는 빠르게 습관으로 정착되지 않을까?

일회성의 환경교육, 활동보다는 **환경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 환경 보전과 건강한 환경을 위해 참여하는 태도와 실천을 습관화하는 것이 유아기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나는 차에 장바구니 두고 사용하기, 다른 해보다 옷소비 줄이기, 페트병의 비닐은 제거해서 분리배출하기, 텀블러는 항상 옆에 두고 사용하기, 일회용품 줄이기, 다시 쓸 수 있는 물건들은 최대한 여러 번 쓰기, 이메일은 수시로 비우기, 복사는 양면복사하기, 침 없는 스테플러 사용하기, 배달음식 줄이기, 배달음식 용기는 씻어서 분리배출하기, 육고기를 좋아하지만 육식 줄이기 등을 실천하고 있다.

옷소비를 줄이고자 옷장의 옷을 살펴보다 입지는 않지만 언젠가 입을 것 같아 옷장 한쪽에 모셔두었던 옷을 유치원으로 가져가 선생님들에게 나눠 주었다.

다음날 너무 멋지게 입고 오신 옆반선생님을 보니 진짜 기분이 좋았다.

이게 나눔의 기쁨일까? 나눔 또한 재활용, 새활용, 재사용의 좋은 예가 아닐까 생각한다.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올해는 지금의 아이들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내년에는 또 다른 아이들을 만나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세상은, 이 지구는 지금보다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